Economy p/08



안전자산 선호 골드뱅킹 뜬다

metro®

메트로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제2993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일본 월드컵 깜짝쇼는 없었다



무더위 즐기는 '동심' 15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르고 대구가 32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성내천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싸움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상청은 16일 남해 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고 낮 최고기온이 24~31도를 기록하는 등 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콘텐츠 월드컵에 눈이 즐겁다

네이버 세계지명사전, 구글 스트리트 뷰 내놔
도시·경기장 정보는 기본, 선수프로필 한눈에…

IT 기업들이 2014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 '월드컵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월드컵 경기와 출전 선수 정보는 기본이고 경기가 열리는 도시, 경기장 등의 데이터도 상세하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세계지명사전'에서 남아메리카의 주요 도시와 유명한 자연명소의 정보를 제공한다. '세계지명사전'은 대한지리학회, 출판사 푸른길과 네이버가 제휴를 맺고 세계 유명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콘텐츠다.

세계지명사전에서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경기가 개최되는 '쿠이아바' '포르투알레그리' '상파울루' 등 브라질 주요 도시를 포함한 남아메리카 주요 지역의 정보들이 제공된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브라질 월드컵의 한국 대표팀 첫 경기가 열리는 '쿠이아바'를 검색하면 '쿠이아바'의 위치와 인구 등 지역 정보뿐 아니라 해당 도시의 역사,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세계지명사전에서는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에 있는 '알티플라노', 남아메리카 최대 고원 '브라질 고원' 등 남아메리카의 유명한 자연 명소들의 정보도 소개한다.

구글은 브라질 월드컵의 일거수 일투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마련했다.

검색창에 '월드컵' 또는 '월드컵 한국'을 입력하면 경기 전 대표팀 선수 라인업은 물론 실시간 득점 상황, 슈팅 수, 선수별 통계를 분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기별 통계도 알려준다.

다른 나라 대표팀의 소식이 궁금하더라도 별도의 검색 없이 '구글 나우'를 열면 해당 팀의 뉴스를 바로 알 수 있다.

'구글 트렌드'를 활용하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선수와 대표팀, 화제가 된 장면, 인기있는 질문은 물론 대표팀이 출전한 각 나라의 분위기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google.com/worldcup 페이지를 방문하면 32개 참가국의 트렌드가 나와있다.

12개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을 기념해 화려한 색채로 조성한 브라질 곳곳의 거리를 자세히 둘러보고 싶으면 구글 지도의 '스트리트 뷰'를 이용하면 된다.

페이스북은 13일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을 맞아 페이지의 '좋아요' 수를 바탕으로 월드컵 인기 스타 23명의 순위를 공개했다.

1위는 8470만명의 페이스북 팬을 보유한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차지했다. 그 뒤를 '좋아요'(5800만)를 받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2370만)가 이었다.

웨인 루니(2090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2000만), 메수스 외질(1990만), 이케르 카시야스(1920만), 다비드 비야(1420만), 카림 벤제마(1320만), 세르히오 라모스(1280만), 제라드 피케(1240만) 순이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인기 스타 23명이 받은 3억8170만개의 '좋아요' 중 2억9900만 개가 상위 11명이 점유했다.

이번 월드컵 출전 선수들의 페이스북 인기 순위는 앞으로의 경기 성적에 따라 달라진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송아지에 모유 먹인다

남아도는 우유 묘책찾기 부심

우유업계가 생산량 증가와 소비 둔화로 남아도는 우유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묘책 찾기에 나서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송용헌 조합장은 조합원(농가)들에게 분유로 키우던 송아지에게 '모유 수유'를 포함한 원유 수급 조절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우유는 또 우유를 짤 수 있는 젖소를 사오는 '외부입식'을 자제하고, 생산 능력이 떨어진 젖소 도태 시키기와 초과 생산 자제도 제안했다. 현재 이 조합의 전체 집유량은 6월 현재 하루 평균 2000톤을 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어난 것이다.

집유량 증가로 우유가 남아돌면서 업체 간 할인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 침체가 이어지면서 분유재고는 4월 기준 18만5856톤에 달해 17만9506톤을 기록했던 2003년 6월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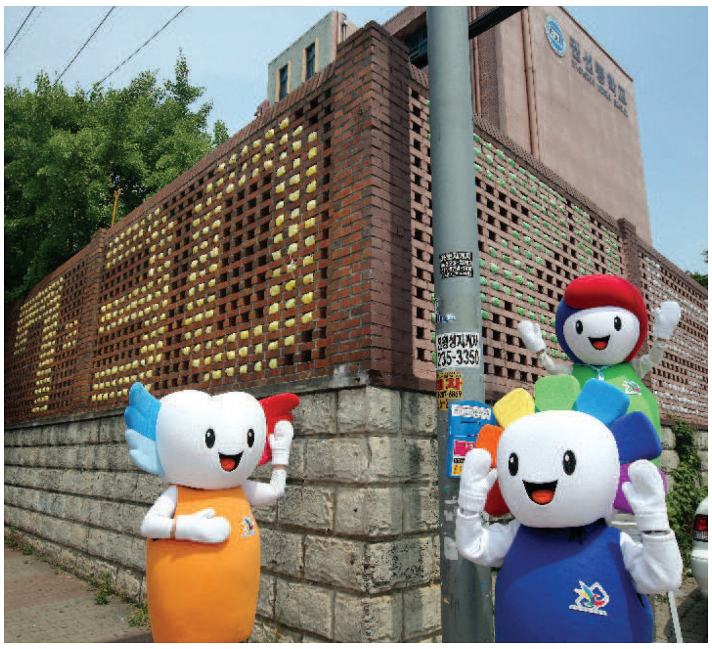
이에 따라 업계는 다양한 생산 감축 대책까지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업체들은 원유 부족 시기에 축산농가의 원유 생산량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일종의 수입 보장정책인 '연간총량제' 시행을 중지하기도 했다.

또 일부 업체는 기준량보다 많이 생산된 원유의 매입 가격을 ℓ당 300원대까지 낮추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우유 제품의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품의 생산원가 변동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가격 연동제'를 적용하면 올해 원유 1ℓ 당 생산비용이 오히려 23원(2.8%)가량 늘어 우유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일기자 prms@



"이제는 7·30 재보궐선거"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중학교 담장에 수원시권선구선관위 직원들이 다음달 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홍보하는 글자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재보궐선거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 "들어보자" vs 야 "자진 사퇴"

문창극 후보 청문요청서 내일 제출… 어제 "언론인 시절 한 일" 사과

과거 발언과 칼럼으로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가 17일 국회에 제출된다. 애초 제출계획 보다 하루가 늦춰진 것으로, 청문준비를 위한 자료수집과 검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때문이라고 문 후보자 측은 전했다.

야당은 국민검증은 이미 '부적격'으로 결론났다며 청문회 이전에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문 후보자 역시 자진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최근 교회 및 대학 특강 발언으로 촉발된 '식민사관 논란'이다. 2011년 온누리교회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4월 서울대 강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사상적 편향성 논란'도 쟁점이다. 그는 교회 강연에서 "6·25를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발언하고, "중국의 민주화, 자유화, 기독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후보자가 신문 칼럼에서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나치게 경도된 우편향 성향이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안은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문회 전에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문특위에 기독교인을 일부 배치하고, 전투력 있는 의원들도 상당수 투입해 야당의 공세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문 후보자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3월 중앙일보에 쓴 칼럼과 지난 4월 서울대 강의에서 우리 힘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감쌀 수 있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본의와 다르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칼럼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언론인 시절 언론인으로서 한 일이었다"며 "이제 공직을 맡게 된다면 그에 맞는 역할과 몸가짐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사과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 앞에서 위안부 발언 논란 등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간식 초코파이 이제 주지 마!

개성공단 거부 의도 궁금

개성공단의 대표 간식으로 북한 근로자에게 인기를 끌었던 초코파이가 최근 북측에 의해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남측 업체에 '앞으로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주지 말라'고 요구한 공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5월 중순 직장장이 초코파이 대신 고기나 밥을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이미 구입한 초코파이를 북한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면 이달 중 다른 먹거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아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등의 관계기관을 통해 초코파이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초코파이 대신 달러를 원하는 사례도 있지만,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초코파이를 거부하는 이유는 남북관계 경색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동안 야근 등을 하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초코파이를 1인당 하루에 10개 정도까지 지급해왔다. 이를 통해 유입된 초코파이는 인기가 많아 북한 내 시장에서 계속 유통돼 왔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 물량을 줄이려는 것은 남북관계 악화 상황,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 외화 획득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최경환 "부동산규제 겨울에 여름 옷 입은 격"

"현재의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 발표가 있었던 13일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정 소감과 경제 정책 구상 등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나.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 입으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최후보자는 올해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당시에도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좀 더 커야 할 청장년 경제인데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성장 늪에서 고만고만하게 가면 결국 굉장히 가진 것 없는 늙은 경제가 될 우려가 많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최근 경기에 대해서는 "좀 나아지려다가 세월호 때문에 주춤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와도 연관이 돼있어서 조금 회복하긴 하는데 너무 미약하다"며 "과거처럼 6~8% 성장은 못 하겠지만 상당한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5~10년은 가져가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정부 성공의 가늠자는 성장률 수치 같은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먹고살기 나아졌느냐"라며 체감경기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1기 경제팀이 이끈 지난 1년간의 한국 경제에 대해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뭔가 나아지겠구나' 혹은 '나아졌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이 체감하게 하는 데는 미흡한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뉴스&뉴스

박 대통령 오늘부터 중앙亞 3개국 순방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부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다.

박 대통령은 이들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 등을 중점 협의한다.

부상 중 퇴직 소방관·경찰 국비 진료

● 공무 중 전상이나 공상으로 퇴직했으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소방관과 경찰 등의 진료를 국비로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미 입법예고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들의 진료비 국가부담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16·17일 서울서 한미 전작권 첫 협의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논의할 한미 고위급 상설협의체가 16~17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국방부는 15일 "한미 국방부 차관보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하는 협의체는 올해 10월 23일로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SCM) 때까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매달 개최된다"고 밝혔다.

아직도 못 돌아온 12인…

참사 2개월 유가족 진도 팽목항서 눈물의 세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개월이 된다.

구조된 이들은 학교와 집으로 돌아갔고 사망자로 발견된 시신들도 오열하는 가족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아직도 12명의 실종자는 진도 앞 '어둡고 캄캄한' 바닷속 어딘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단원고 학생 6명, 교사 2명, 승무원 1명, 일반인 3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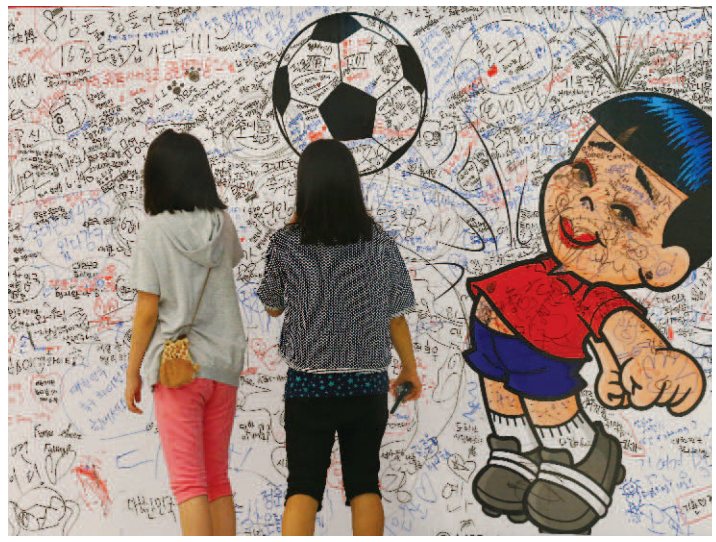
사고 당일 다른 승객의 도움으로 구조된 5살 여자아이의 아빠와 두 살 위 오빠는 아직 차가운 바다에 있다. 엄마만 앞서 시신으로 돌아왔다. 제주에 귀농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세월호를 탄 사연은 국민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단원고 학생들은 아직 6명이 실종 상태다. 수학여행에 나섰던 단원고생 325명 중 겨우 75명만 구조됐고 24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어린 학생들을 구하려고 탈출을 돕던 단원고 교사 2명도 바다에 남아 있는 제자들을 뒤로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승무원 중에서는 3층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여성 조리사 1명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조리사는 다른 남자 조리사와 함께 다쳐 쓰러져 있을 때 탈출하던 다른 승무원들의 눈에 띄었지만 버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실종자들이 모두 세월호 선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층에 4명, 4층에 8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해경·해군 잠수대원, 언딘과 88 소속의 민간잠수사들이 사투를 벌이며 유속이 느려지는 정조 때마다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빼곡한 응원 메시지 2014 브라질월드컵 한국 대 러시아의 경기를 사흘 앞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 이동 통로에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응원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다. /연합뉴스

일가족이 회장 등 임원진 꿰차

공수도연맹 수당·보조금 횡령

일가족이 대한공수도연맹의 회장·부회장·주요 임원 등을 나눠 맡아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선수 훈련수당을 가로채고 보조금 등 5억4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공수도연맹 전 부회장 A(3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전 회장 정모(70)씨, 전 임원 B(37)씨와 C(32)씨, B씨의 처 강모(37·여)씨, 전 직원 김모(35)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정씨의 장녀·장남·차남으로 일가족이 연맹의 부회장과 임원 등을 나눠 맡아왔다. 대한체육회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시작한 2006년부터 가족 중심으로 연맹을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연맹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준기자



금수원 주변 검문검색 15일 오후 '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 주변 38번 국도에서 경찰 병력이 수배자를 찾기 위한 차량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차량서 2천만원 도난

현직 국회의원 차에서 현금 2000만원이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 국회의원 측은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사동 의원사무실 앞 도로에 서 있던 에쿠스 차에서 현금 2000만원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현금은 차 뒷좌석에 둔 가방에 서류와 함께 들어 있었다.

A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B씨는 "의원님이 차 안에 있는 가방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보니 가방이 없어져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4~5시 사이에 현금이 든 가방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 국회의원의 운전기사 C씨가 사건 당일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인상 착의가 비슷한 인물이 A 의원 차가 서 있던 도로 주변 CCTV 화면에 찍힌 점으로 미뤄 C씨를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우기자 cyclone@

유병언 친형·신엄마 구속영장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5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친형 병일(7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유씨의 최측근으로 유씨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일명 '신엄마'(신명희·64·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병일씨에게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신씨에게는 범인도피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던 병일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일씨는 13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신씨는 같은 날 자수했다.

병일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윤다혜기자 ydh@

유병언 수색 후 축구하던 경찰관 숨져

인천의 한 경찰관이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한 근무를 마치고 운동을 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2시 27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대학교 운동장에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김모(50) 경위가 축구 경기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 전 회장 부자 검거를 위해 부평역 인근의 숙박 업소를 일제 수색했다. 전날에도 유 전 회장의 지명수배 전단을 반상회에 홍보하기 위해 오후 9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약령시 주차장 설계공모

서울시 동대문구는 제기동에 위치한 서울약령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를 공모한다.

구는 다음달 14일까지 작품을 접수받고 심사를 통해 설계안을 선정한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서울시 중랑구는 19일까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단기보호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총 74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다.

구는 ▲건축시설 점검 ▲부대시설 점검 ▲보험가입여부 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 분야별로 실시한다.

용산구 '메모리데이' 실시

서울시 용산구가 18일 오후 4~6시 서울역 광장에서 치매예방 캠페인 '메모리데이'를 실시한다.

지역주민들과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체크 모바일앱을 이용해 간이치매검사를 해주고, 치매예방 관련 리플렛과 소책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하철 승강장 게시할 시 공모

서울시는 '시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23일까지 지하철 승강장안전문에 게시되는 시 작품을 공모한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시민들의 시 문학에 대한 관심과 문화예술 참여를 위해 공모작 200여 편을 엄선해 지하철 전 노선에 골고루 배치, 게시할 계획이다.

자격제한은 없으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와우서울'(wow.seoul.go.kr)공모전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인터넷 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승강장안전문에 게시되는 작품은 문학 관련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양육수당 지원기간 2개월 연장

초등학교 입학 전달까지 지원하는 보육료와 형평에 맞도록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1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급기간을 2개월 연장,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달리 영유아를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아닌 사설 기관에 보내는 가정에 지급된다.

그동안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되는 반면 양육수당은 입학 전년 12월 말까지만 지급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행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거쳐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늘려 보육료 지원과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다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내년 시행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안행부는 전했다. /윤다혜기자 ydh@

"AI 끝난줄 알았는데…"

청정지역 강원도 횡성 고병원성 확인 '당혹'…"한우에 영향없어"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인 강원도 횡성군에서 고병원성 AI(H5N8형)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지난 13일 폐사한 거위가 고병원성 AI로 확인되면서 마을 진입로 입구에는 방역 당국이 차단막을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이어 이 농장 거위 969마리와 닭 20마리 등 989마리를 살처분했다.

발병 농가는 평소 풀어놓고 기르던 거위들이 죽어가자 당국에 신고했고, 농림축산 검역본부가 감정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

이 마을 한 주민은 15일 "산으로 둘러싸인 외진 마을에 AI가 발생하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최근 가뭄과 우박 피해까지 발생한 횡성지역에 AI까지 등장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부지역에서 AI가 북상할 때마다 안간힘을 다해 막아냈던 강원도는 마지막 AI 청정지역이 뚫린 데 허탈해하는 모습이었다.

강원도는 지난 2월 원주시 호저면 섬강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에서 AI 양성반응이 나오자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하며 확산을 막았다. 또 지난겨울 철원·양구 등 접경지역까지 AI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음성으로 최종 확인돼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여름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더욱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AI가 거의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발생해 거의 멘붕 상태"라며 "한우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용인외대부고 22박 캠프 개최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가 다음달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22박 23일 동안 용인외대부고 캠프를 연다.

올해로 7회째인 캠프는 토론·발표·실험·실습 등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으로 이뤄져 있다. 모집대상은 초5·6, 중1·2학년이다.

외대부고 캠프는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의 선행학습을 위한 수업이 아닌 토론·발표·실험·실습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외대부고의 특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모델로 한 프로젝트형 창의사고 수업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031-324-0017로 문의하면 된다.



'함께 자전거 타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에서 열린 '2014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정차로 준수율 향상

경찰 "저조한 곳 집중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지정차로 준수율이 65.5%로 1월(51.4%)보다 14.1%포인트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대형화물 차량의 준수율이 이 기간에 36.2%에서 57.7%로 17.9%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이륜차는 44.7%에서 46.7%로 2.0% 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도로별로 보면 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는 준수율이 크게 향상됐다. 내부순환로는 1월 63.8%에서 지난달 88.8%로 25.0% 포인트 증가했지만 올림픽대로는 1월 51.6%, 5월 56.1%를 각각 기록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경찰은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은 올림픽대로와 천호대로를 통행하는 이륜차와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캠코더·순찰차 블랙박스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26세 이상 한국 여성 안돼 日 '워홀' 비자발급 중단

주한 일본대사관이 올해 들어 만 26세 이상 한국 여성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5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4년 2분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 합격자는 총 7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 합격자(146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다.

1분기 워킹홀리데이 합격자 수 역시 880명으로 지난해 동기(1652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가장 큰 원인은 만 26세 이상 여성의 심사 합격률이 거의 '0%'로 떨어진 것이다.

최근 수년간 워킹홀리데이를 원정 성매매에 악용하던 여성들이 일본에서 강제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랐던 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다혜기자



14일(현지시간) 아라비아해에서 이동 중인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 /AFP 연합뉴스

美 항공모함 걸프만 이동

이라크 군사작전 대비… 미국 내 공습단행 여론 거세

이라크에서 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공습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미국이 동원할 군사력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척 헤이글 장관이 니미츠급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함을 이라크 인근 걸프만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6000명의 병력이 승선한 조지 HW 부시 함은 아라비아해 북부에서 대기 중이었다. 길이 약 333m의 조지 HW 부시에는 'F/A-18 슈퍼호넷' 전투기 4개 편대를 포함해 통상 56대의 고정익 전투기가 배치된다.

미사일순양함 '필리핀 시'와 미사일구축함 '트럭스턴'도 함께 이동한다. 이들 항모전단은 전투기, 헬리콥터는 물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의 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도 핵심 전력이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약 1100㎞ 떨어진 이 기지는 중동 최대 규모로 120대의 군용기를 수용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의 요청에 따라 무인기(드론)를 통한 정찰 업무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라크 수니파 무장 세력의 공세를 약화시키려면 공습을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공화당은 이라크 무장세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이라크에 지상군을 파병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푸틴 대통령 티셔츠 모델로

metro Russia

군복 입은 모습 인기

최근 모스크바 국영 굼 백화점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이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해 화제다.

티셔츠 디자이너 안나 트리포노바는 "지난 몇 년 간 러시아를 테마로 한 기념품 제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 추세를 반영해 푸틴 대통령을 테마로 한 기념 티셔츠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발한 꽃을 배경으로 군복을 입고 있는 푸틴 티셔츠가 인기가 많다"며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의 강인한 이미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티셔츠 디자이너 이반 에르쇼프는 "창의력을 발휘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티셔츠 속의 푸틴 대통령은 집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원하는 어떤 곳에도 갈 수 있다. 느긋한 낮잠을 즐길 수도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티셔츠를 구매한 한 여성은 "외국에 살고 있어 항상 모국인 러시아를 그리워한다"며 "이번 방문길에 러시아와 대통령을 응원할 수 있는 티셔츠를 구매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다리아 부야노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3일>

코스피	1,990.85	(–20.8)
코스닥	536.34	(–0.20)
금리(국고채 3년)	2.85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17.8	(+0.10)

뉴스&뉴스

조종사 추천 여행지는 하와이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올 여름 최고 여행지로 지상 최대의 낙원인 하와이를 1위로 꼽았다.

하와이는 '시원한' 부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23%, '이열치열'은 26%, '효도'는 29%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시원한' 부문에서는 시드니, 취리히가 높은 순위에 올랐다. 아울러 '이열치열' 부문에서는 몰디브와 괌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효도' 여행지로는 방콕과 일본 온천여행이 많은 추천을 받았다. 한편 '어린 자녀와의 첫 여행지' 부문에서는 괌이 40%로 1등을 차지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금융사 불량딱지 없앤다

●금융회사 영업점에 붙여진 붉은색 불량 딱지가 한 달만에 없어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원발생평가 최하등급(5등급)을 받은 3000여개 금융회사 영업점에 부착한 '불량' 딱지를 떼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지난달 12일부터 3개월 동안 홈페이지와 개별 영업점에 민원평가 등급을 공시하도록 했으나, 한 달 만에 기간을 축소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고지가 됐고, 영업에 지장이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착 여부를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inji@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월드컵 재송신료 분쟁 '강력 경고'

정부, 지상파·유료방송업계에 "방송중단 없어야"

'2014 브라질 월드컵'이 본격 개막한 가운데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간 재송신료 분쟁이 지속되면서 블랙아웃 우려마저 나오자 정부도 경고에 나섰다.

15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관련 협회에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 분쟁 관련 정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지상파는 공공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방송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사업자 또한 가입자에 일정 수신료를 받고 있는 만큼 차질없이 방송을 서비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월드컵 재송신과 관련, 성실히 협상하고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방송 중단 등으로 인한 국민의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사업자가 사익 추구에 집중해 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공공성을 저버린다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인 행정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들이 지난 10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로 한국과 가나의 월드컵 축구대표팀 평가전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부와 방통위의 이번 공문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모두에 발송됐지만 내용상 지상파에 대한 경고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가 현재 재송신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익 추구를 위해 월드컵이라는 전 세계적 축제를 노려 추가 재송신료를 받으려 하고 있다"며 "지상파 3사는 월드컵 중계방송 재송신료라는 부당한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월드컵 재송신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현재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가입자는 정상적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지상파가 신호를 끊어 유료방송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방송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케이블TV, IPTV 사업자는 자사에서 운영 중인 N스크린 서비스를 통한 월드컵 방송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의 'Btv 모바일', KT미디어허브의 '올레tv 모바일', LG유플러스의 'U+HDTV' 등 모바일 IPTV 서비스와 CJ헬로비전의 '티빙'은 지상파가 신호를 차단해 월드컵 중계방송 시 "해당 방송사 및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시청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만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로 월드컵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다음, 아프리카TV, 푹(POOQ) 등을 이용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월드컵 재송신료 요구에 대해 유료방송 사업자의 반발이 강력한 만큼 지상파가 월드컵 재송신료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도 전해진 만큼 블랙아웃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월드컵 이후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롯데백화점 '파이팅 코리아' 분수 패션쇼 2014 브라질월드컵 한국 대 러시아의 경기를 사흘 앞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모델들이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이색 패션쇼를 펼치고 있다. 한국 대 러시아의 경기는 18일 오전 7시 열린다.

부동산 침체에도 재벌 총수들 집값은 10% 올라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30대 재벌그룹 총수들의 보유 주택이 1700억원대로 1년 새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30대 재벌그룹 총수 이름으로 돼 있는 단독·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산정)은 모두 1724억원으로 지난해의 1572억원보다 9.7% 상승했다.

이는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일부 총수들이 새로 주택을 사들이면서 보유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이태원 단독주택 등 주택의 공시가격은 309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에 올랐다.

이 회장 보유 주택가격은 1년 새 평균 9.9% 올랐다. 지난해 130억원이던 이태원 단독주택은 올해 149억원으로 14.6% 상승했고 삼성동 단독주택과 서초동 공동주택의 공시가도 각각 110억원과 50억800만원을 기록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택가격은 지난해 128억원에서 올해 154억원으로 20.2% 늘어나 2위였다.

이명희 회장은 기존 한남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데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소유하던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을 지난해에 새로 사들이면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이 20%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주택은 지난해보다 2.3% 오른 89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보유한 한남동과 청운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가회동 단독주택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가족이 보유한 성북동 주택 공시가격도 각각 74억원에 달했다.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도 신문로 단독주택 등 모두 61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과 정몽근 현대백화점그룹 명예회장의 성북동 주택은 59억원씩을 기록했다. /김두탁기자 kimdt@

"창조경제 성과낼 것"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물러나고 최양희 서울대 교수가 후임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미래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개각 발표를 통해 최양희 교수의 미래부 장관 내정 사실을 밝히며 "창조적 발상과 오랜 융합기술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미래산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에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출범한 미래부는 1년여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는 상황에 직면했다.

사실 이번 개각에서 미래부 장관이 포함된 것은 이처럼 지난 1년간의 저조한 성적표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창조경제 관련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최양희 장관 내정자는 정보기술 분야 간 융합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고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을 맡아 민간에서 창조경제 정책을 이끌어온 만큼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최대 숙제는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다. 최 장관 내정자도 이를 고려한 듯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잘 만들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잘 융화될수록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만큼 참여자의 소통·화합을 최대한으로 끌어내 창조적 마인드가 모든 분야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선정 – 동부화재

동부화재

운전중 교통상해사망까지 보장하는 보험 –

생명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이에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시
3억원 일시금 지급
(특약 가입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자동차 부상치료비
14등급(**5만원**)~1등급(**400만원**)**지급**
(특약 가입시)



매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지는 않나요?

갱신·할증없이
월 11,990원
(20년 만기 20년 납, 월납, 자가용운전자 기준)

갱신없이~할증없이~

이 보험 하나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피해자 사망/중상해, 중과실사고시, 특약가입시)

정식기소시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특약가입시)

법원판결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특약가입시)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종합보험 1404

● 보험료 예시

[20년만기 20년납, 월납, 자가용운전자기준, 단위 : 원]

구분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 30세남	30세여	40세남	40세여	50세남	50세여
보통약관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보통약관)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1,000만원	102	71	102	71	102	71
특별약관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일시금으로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0만원	4,350	2,190	4,350	2,190	4,350	2,190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	554	704	554	704	554	704
	자동차부상치료비 II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별 5만 ~ 400만원 지급	400만원	1,656	734	1,656	734	1,656	734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피해자 사망, 피해자 중상해, 중대법규위반사고)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	3,000만원	2,275	2,274	2,275	2,274	2,275	2,274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만원	117	117	117	117	117	117
	벌금(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000만원	293	293	293	293	293	293
보장보험료 합계				9,347	6,383	9,347	6,383	9,347	6,383
적립보험료 합계				2,643	5,607	2,643	5,607	2,643	5,607
납입보험료 합계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예시보험료는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벌금(실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6종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6종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6종건설기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20년만기, 20년납, 상해1급,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월납11,990원, 단위 : 원, %]

경과연수	납입보험료	예상 해지환급금(률) 최저보증이율 환급금	최저보증이율 환급률	표준이율 환급금	표준이율 환급률	표준이율 × 1.2 환급금	표준이율 × 1.2 환급률
1년	143,880	–	0.0%	–	0.0%	–	0.0%
3년	431,640	45,230	10.5%	47,250	10.9%	47,450	11.0%
5년	719,400	100,310	13.9%	106,040	14.7%	106,630	14.8%
7년	1,007,160	156,990	15.6%	168,550	16.7%	169,750	16.9%
10년	1,438,800	246,050	17.1%	271,290	18.9%	273,970	19.0%
16년	2,302,080	436,460	19.0%	511,380	22.2%	519,690	22.6%
20년	2,887,600	573,050	19.9%	701,170	24.4%	715,780	24.9%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1.5%), 「표준이율(3.5%)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및 「표준이율×1.2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304(월변동금리, 2014년 04월 현재 3.7%)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304)을 적용하여 산출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지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만 받으셔도
불스원 3종세트 무료증정
경품제공_(주)동부화재 해상보험
경품증정대상_전화 상담고객(단,1인 1회에 한하여 지급)



080-249-7000

• 계약자는 청약을 한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철회가능하며 계약 청약 이후 보험약관 미전달, 청약 미녹취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 등 비례보상 담보의 경우 이전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4-0614호(2014.3.31)〉

국내상장 중국기업 '옥석가리기'로 러브콜

"기업정보 공개해 한국 투자자와 소통 강화"

과거 중국고섬의 상장폐지 등으로 신뢰를 잃었던 국내 상장 중국기업들이 올 들어 달라진 모습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들 상장사는 부실 기업 퇴출 후 오히려 '옥석가리기'가 진행됐다며 향후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국내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완리·씨케이에이치·차이나그레이트 등 코스닥 상장 중국업체 3곳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합동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

이들 회사는 현지 CEO가 직접 참가해 기업 정보를 소개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외벽타일 생산업체인 완리의 우웨이바오 대표는 "완리(2011년 6월)를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에 신규 상장한 중국 기업이 없다"며 "투자자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는 게 사실이므로 기존 상장사로서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일부가 지난해 잇따라 부실 혐의로 퇴출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가 곤두박질쳤다.

중국고섬은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코스피 상장 3개월 만에 상폐됐고 중국식품포장과 3노드디지탈도 자진 상폐 절차를 밟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중국고섬의 상장 주관사였던 KDB대우증권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으나 투자자 신뢰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날 합동IR에 나선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은 향후 실적 등 기업 정보를 국내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며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식품업체인 씨케이에이치의 린진성 대표는 "제품과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실적 호조를 보인 일부 기업들은 주가가 되살아났다.

씨케이에이치는 지난 13일 전 거래일보다 140원(3.2%) 오른 4520원의 종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 주가가 80% 가까이 올랐다.

중저가 캐주얼 의류·신발 제조업체인 차이나그레이트는 13일 종가가 4245원으로 무려 2.6배 넘게 상승했다.

이 회사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68%, 12.89% 증가하면서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모든 국내 중국 상장사들에 불거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중국원양자원의 경우 지난해 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원리금 204억원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연초 대비 반토막 수준보다도 더 빠진 상태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원양자원의 최대주주가 회사 대표에서 채권단으로 바뀌면서 소액주주 사이에 회사 주가에 줄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뿐만 아니라 BW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포함,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잘 살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금융한류' 먹거리 찾아 해외로…

시중은행, 중국·동남아·중동 점포 잇따라 개설

저금리·저성장의 장기화로 수익성 악화에 부딪힌 시중은행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기존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중국,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유럽에까지 해외 점포를 세우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실제 이들 은행의 영업망 확충에 따라 해외 점포 실적 또한 올 들어 일제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경우 64개의 해외 점포에서 올 1분기에만 6954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16.6%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모두 69개의 해외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91개의 점포를 가진 외환은행의 영업이익 역시 각각 40.5%, 21.4% 증가한 3901만 달러, 5015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시중은행의 은행장들 또한 해외 지점을 방문하는 등 해외 점포 확대에 관심을 쏟고 있다.

먼저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지난 11일 두바이에 개설된 우리은행 두바이지점을 방문했다.

앞서 지난 2012년에 인도 첸나이 지점 및 브라질 현지법인을 설립해 국내은행 최초로 BRICs 영업벨트를 구축한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Saudara은행 인수에 대한 최종승인을 획득했으며 연내 인도네시아우리은행과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아프리카 소재 현지은행과 MOU를 맺고 한국데스크를 설치해 본격적인 아프리카 시장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또한 올해 초 중국 베이징분행 개점식에 참석했다.

기업은행은 베이징분행 개점으로 톈진과 칭다오, 선양, 옌타이 등 중국 내 8개 지역에 15개의 영업망을 갖추게 됐다.

한편 신한은행은 최근 폴란드에 유럽신한은행 폴란드 대표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로써 모두 16개국 69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된 신한은행은 지난 199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법인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래 서유럽 내 한국계 기업 진출들에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유럽신한은행 관계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는 서유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경제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주목하고 있던 지역"이라며 "폴란드 대표사무소 진출로 동유럽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우리은행은 지난 11일에 두바이 지점을 개설했다.



말리부 디젤 시승행사 쉐보레 말리부 디젤 시승행사가 14일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열렸다. /한국GM 제공

안전자산 선호에 골드뱅킹 뜬다

국제 금값이 모처럼 급등하면서 '골드뱅킹'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된 8월물 금가격은 전거래 보다 12.8 달러(1.0%) 오른 온스당 1274 달러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27일 이후 2주만에 최고치다.

이라크 사태 여파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 때 금값은 1250달러 선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오름세를 연출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골드뱅킹' 상품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골드뱅킹이란 은행이 고객들을 상대로 금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금화나 금괴 등 금을 직접 사고파는 방식과 금통장, 금증서 등 금을 주고 받지 않고, 증서상으로만 거래한 후 투자의 이익과 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현재 골드뱅킹을 판매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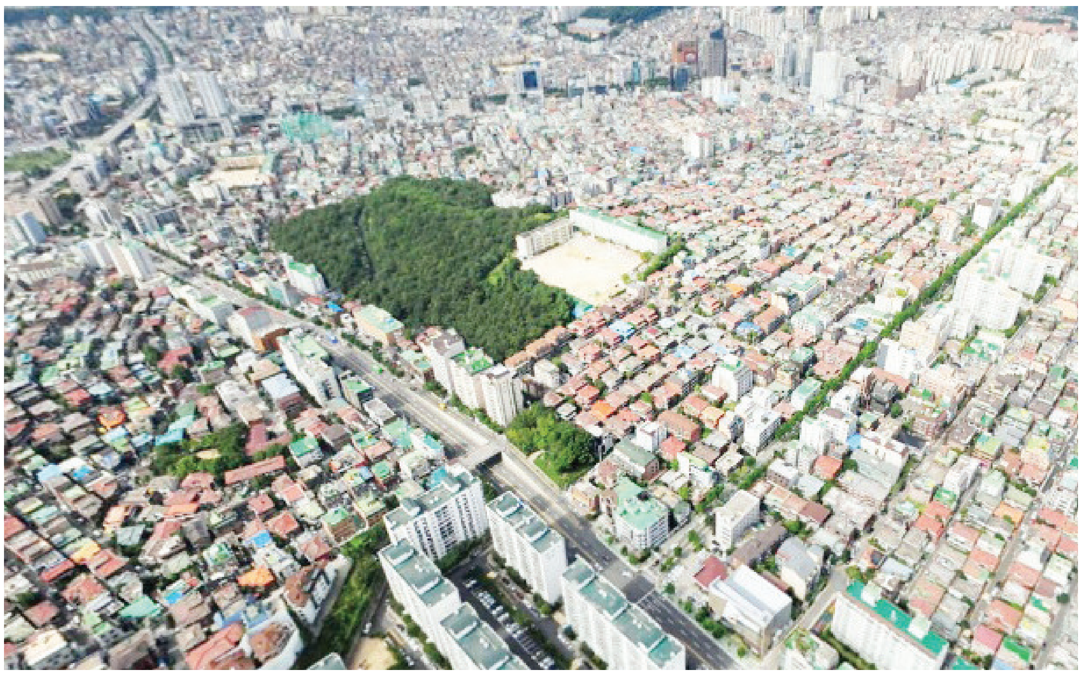
신한은행은 온라인 전용인 'U드림골드모어'와 '골드리슈골드테크' 등을 선보였다. 'U드림 골드모어 통장'은 금 실물의 거래 없이 통장으로 자유롭게 금을 매입·매도할 수 있다. '골드리슈골드테크 통장'은 기한과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통장으로 금을 그램 단위로 매입·매도할 수 있다. 예약매매, 반복매매, SMS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우리골드투자'와 '우리골드적립투자' 등을 골드뱅킹 상품으로 내놓았다. '우리골드투자'는 금에 투자하는 자유 입출금식, '우리골드적립투자'는 월 단위로 가입하는 적금 형태 상품이다. 매일 오전 수익률 등을 문자로 전송하는 SMS 서비스, 지정가 반복 매매서비스, 자동이체서비스, 골드적립이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의 'KB골드투자통장'은 거래 시점의 국제 금값과 원·달러 환율에 의해 결정되는 거래가격에 따라 원화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규 가입시 1그램 이상 예치한 후 0.01그램 단위로 거래하며, 원화로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다"면서 "하루에도 금 가격의 변동폭이 심한 만큼, 금 시세와 환율 움직임을 보며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서울시 서초구 방배 제14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수도권 소형 건설의무 폐지

하반기, 부동산 규제 풀기 본격화

연초 상승세로 출발했던 주택시장은 2·26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세월호 참사, 6·4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다시 얼어붙었다.

이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하반기 각종 부동산 규제들의 완화가 본격화된다.

우선 이르면 6월 말부터 수도권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 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부터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간 청약을 박탈한다. 지금까지는 청약자격을 위반해 당첨된 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역에 따라 1~2년간 청약자격이 박탈돼 왔다.

10월 29일부터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도 현행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단축된다.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예비 입주자들의 주택 구입이 지연되고, 사업주체 역시 분양 지연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중 시행된다. 기존 매입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등록 시, 이전에 임대한 기간의 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해준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권 양도·전대를 완전 허용(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10월부터는 종전보다 지급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지원한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개편된 제도에 따라 지원이 계속되며, 신규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밖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돼 대기 중이며, △수도권 재건축 1가구 1주택 공급규정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2·26대책 전월세 과세 수정안 등의 국회 처리가 예정돼 있다. 14년째 그대로인 중개수수료 역시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개편될 전망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은행연·일양약품·수협 알짜기업 채용문 '활짝'

여름휴가를 앞두고 알짜기업들의 채용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7일까지 기획, DB운용 분야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기획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DB운용은 박사 학위 소지자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는 e메일(freestyle@kfb.or.kr)로 하면 된다.

일양약품에서 영업부분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MR(의약정보담당자)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1차 실무자면접 후 필요에 따라 온라인인적성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일까지 홈페이지(www.ilyang.co.kr/recruit)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동제약에서도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의약사업본부, 중앙연구소, 생산본부다. 서류, 인적성 검사·테스트, 1차, 2차 면접, 합격발표의 순으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23일 오후 4시까지 홈페이지(www.kdpharma.co.kr)에서 지원하면 된다.

수협은행에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채권운용전문역, 외환마케팅전문역, RM지점장 등 전문인력을 모집한다. 텔레마케팅직 경험자도 뽑는다. 26일 오후 6까지 e메일(insa@suhyup.co.kr)로 지원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은행지주사, 3월 총자본비율 양호

지난 3월 말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3.59%, 11.16%, 10.33% 수준으로 집계됐다. 모든 은행지주사가 1등급을 받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각각 0.35%포인트, 0.0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보통주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0.25%포인트 상승했다.

3월 말 대손준비금 적립으로 당기순이익 1조7000억원을 시현한 것이 영향을 줬다.

이에 보통주자본은 2조4000억원 증가한 12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총자본(158조9000억원)과 기본자금(130조4000억원)은 부적격자본증권 자본미인정금액이 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라 지난해 말보다 각각 1조원, 4조8000억원 감소했다.

총자본비율은 그룹 전체(종속회사 포함)의 위험가중 자산 대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친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기본자본은 보통주자본에 기타 기본자본을 더한 자산을 전체 위험가중 자산과 대비한 비율이다.

한편 위험가중자산은 3월 말 1169조1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 줄어들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신용카드채권이 1조7000억원어치 감소했고 파생상품자산은 4조3000억원 줄어든 것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회사별로는 씨티지주의 총자본비율이 18.42%로 가장 높았다.

SC가 16.47%로 뒤를 이었고 KB(15.17%), 농협(13.90%) 등도 높은 편에 속했다.

총자본비율 하락 원인별로는 DGB가 은행자회사의 신종자본증권 상환 등으로 1.63%포인트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어 우리, 농협지주가 각각 0.45%포인트, 0.39%포인트 떨어졌다.

기업여신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인해 총자본비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BS로 -0.75%포인트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JB(-0.55%포인트), 산은지주(-0.50%포인트) 등 순이었다.

대부분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비율이 하락했으나 모두 계량평가 기준 1등급을 받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1등급 기준은 총자본비율 10%, 기본자본비율 7.5%, 보통주자본비율 5.7%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부적격자본증권의 자본미인정금액 증가 등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 은행지주회사는 조건부 자본 발행 등 적극적으로 자본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는 최저생계비"



김현수 법무사의 개인회생 이야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최저생계비이다. 최저생계비란 1인, 2인, 3인 또는 그 이상이건 한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월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예컨대 1인 가구일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는 60만원, 법원은 이 금액의 150%인 90만 5104원을 최저생계비로 인정해준다.

과연 이 정도의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최저' 수준이다. 개인회생을 할 경우 5년(60개월)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남의 빚을 지고 갚아야 할 처지이니 그 정도 각오는 하라는 것이 법원의 취지일 듯 싶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가용소득이라고 한다. 가용소득은 전부 부채를 갚는데 투입해야 한다.

남편은 무직이고 부인은 직장을 다니며 아이가 초등학교 아들 하나인 40대 부부가 있었다. 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월 가용소득이 155만원선으로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54만 1125원보다 1만원도 더 많지 않다. 물론 남편은 소득이 없어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최저생계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선은 아니다. 이 부인의 경우 법원은 월 10만원 이상 변제하라고 권고했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로 잡으라는 것이다.

물론 최저생계비를 높이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회사가 멀어 출퇴근에 자동차를 반드시 이용해야 할 경우 자동차 유지비를, 지병이 있어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할 형편이라면 치료비를 각각 추가할 수 있다.

<www.lawshelp.kr>

삼성전자, 월드컵 기간 '갤럭시 11' 캠페인

삼성전자가 글로벌 축구 스타와 함께 하는 '갤럭시 11' 캠페인이 주목받고 있다.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청용 등 각국을 대표하는 축구 스타로 구성된 '갤럭시 11'은 전 세계 소비자가 축구와 갤럭시 전략 제품의 혁신 기술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포테인먼트 마케팅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11' 캠페인에 맞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30일까지 '갤럭시S5' 구매자를 대상으로 '갤럭시 11' 보호 커버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갤럭시S5'를 구매한 고객은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청용, 웨인 루니 선수의 모습이 담긴 4종의 보호 커버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브라질 월드컵 개막과 함께 많은 소비자들이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갤럭시S5', '기어 핏'을 비롯한 모바일 최신 제품과 함께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를 즐기는 '갤럭시 11' 캠페인이 즐거움을 찾는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 11' 선수들이 '갤럭시S5'와 '기어 2', '기어 핏'을 활용해 외계인과의 경기를 준비하는 훈련 영상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어 지구의 운명을 놓고 외계인과 겨루는 3D 애니메이션 '갤럭시 11:더 매치' 전반전 영상을 지난 9일 새롭게 공개해 최종 결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직접 '갤럭시 11' 팀 선수를 플레이하며 외계인과 축구 대결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스트라이커 사커 갤럭시 11(Striker Soccer G11)'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스트라이커 사커 갤럭시 11'은 삼성앱스,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1~22일 신촌 스타광장에서 '갤럭시S5+기어 핏'을 체험하며 '갤럭시 11'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도 운영한다. 갤럭시 스튜디오에서는 '갤럭시S5'와 '기어 핏' 등 제품 체험은 물론 다채로운 이벤트까지 즐길 수 있다. 실제 크기로 재현한 메시, 호날두, 이청용, 루니 등 유명 축구 선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돼 있고, 모바일 게임 '스트라이커 사커 갤럭시 11' 게임존, OX 퀴즈존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참여 고객은 다양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축구로 집중된 지금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 '갤럭시 11' 캠페인도 클라이막스를 앞두고 있다"며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구성된 '갤럭시 11' 팀이 외계인과 벌이는 가슴 짜릿한 최종 승부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주간분양

월드컵 열기 불구 신규 분양 쏟아져

월드컵 개막으로 분양시장이 주춤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다음 주 신규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20곳, 당첨자 발표 8곳, 당첨자 계약 15곳, 견본주택 개관 4곳 등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대우건설은 19일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c-19블록 '한강신도시2차 푸르지오'의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67~84㎡, 전체 242가구로 규모로,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운양역(가칭)이 단지 바로 옆에 들어선다. 중심상업지구 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같은 날 경기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A9블록 '양주신도시 푸르지오'도 공급한다. 전용면적 58㎡ 단일 면적으로 이뤄졌으며, 총 1862가구의 대단지다. 시범지구에 위치해 호수공원, 중심상업지구 등과 가깝고, 초·중·고교 예정부지와도 인접했다.

이날 현대건설은 경남 창원시 감계지구 2블록 8롯트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4차' 청약접수를 받는다. 전체 1665가구, 전용면적 59~101㎡로 구성된다. 남해고속도로 북창원 IC, 79번국도, 중부내륙고속도로 등을 통해 창원시내는 물론 인접지역으로도 쉽게 이동 가능하다.

GS건설은 20일 서울 동작구 상도10구역을 재개발한 '상도파크자이'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1~84㎡, 총 471가구 중 9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초역세권 단지다.

같은 날 경북 김천혁신도시에서는 중흥종합건설(3-4블록)과 골드클래스(AC-2블록)가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또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백석더샵' 견본주택 문을 열고 손님맞이에 나설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스마트포인트 세이브' 서비스 SK플래닛은 홈플러스와 손잡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포인트 세이브' 서비스를 선보인다. 고객은 커피 등 OK캐쉬백이 부착된 생필품 구매 시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SK플래닛 제공

미래부, UHD 콘텐츠 육성 본격 시동

정부가 국내 초고화질(UHD) 방송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UHD 콘텐츠 제작지원 프로그램 12편을 최종 선정, 제작을 본격화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4월 1차로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트레일러(예고편) 제작을 지원했다.

13일에는 트레일러 제작결과물을 대상으로 2차 본 심사를 실시, 드라마 '소금별', 다큐멘터리 '샤먼의 노래'·'인류 최초의 사인, 암각화' 등 12편을 최종 선정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제작을 완료해 내년 UHD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가전사와 공동으로 지정 공모해 선정된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다큐멘터리 '신 세계 7대 불가사의' 등 6편은 세계 가전매장에서 UHD TV 프로모션 영상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또 미래부는 10월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되는 콘텐츠 마켓(MIPCOM)에 참가해 판매활동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12월에는 '제4회 인터내셔널 3D·UHD 페스티발 2014'를 개최, 일본·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가 전문가들과 함께 '2014 대한민국 3D·UHD 콘텐츠 대상 시상식', '시사회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해 올해 사업성과를 대내외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 제작·유통과정에서 국내 UHD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제작 멘토링 워크숍을 통해 UHD 콘텐츠 산업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불법 채권추심행위 아닌가요?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불법 빚 독촉 대응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융민원센터(☎1332)를 운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소비자는 이 센터에서 상담받거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1: "저는 경제적 곤란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못한 뒤 채무변제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심회사 직원이 밤늦게 저희 집을 찾아오거나 새벽에 독촉 문자를 계속 보내 힘이 듭니다. 심지어 무서운 생각마저 드는데요, 추심회사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감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추심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자·영상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채무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심회사의 이 같은 행위는 위법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민원인 2: "가족 모르는 빚이 있었는데 추심회사가 집으로 연락해 가족이 모두 알게 됐습니다. 추심회사 직원은 가족들에게 제가 어디 있는지 묻고, 채무 내용이 적힌 엽서를 저희 집으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또 최근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의 최대 90%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받았음에도 불구, 추심회사는 제게 변제 요구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 법에 따르면 추심회사는 채무자가 연락을 두절해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외에는 채무자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와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재를 알 수 있는데도 가족들에게 연락한 행위는 위법이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또 엽서로 채무변제를 요구해 다른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거나 채무자가 면책된 것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법적 절차를 벗어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 사항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례에 따라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금융상담전화(1332)

/정리=김현정기자 hjkim1@

2014년 3차 벤처기업 공동채용!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열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 벤처기업 공동채용이란?

매출액, 성장성,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수벤처기업 채용정보를 선별하여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들에게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벤처기업 공동채용관(www.v-job.or.kr)을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채용정보 제공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채용 참여기업 수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선도벤처기업(비제조업은 50억원 이상), 연평균 20%이상 성장하는 우수성장기업, 신입사원 연봉 2,200만원 이상의 연봉우수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기업

지원자격

대학졸업 예정자 및 미취업자, 특성화고 졸업자(예정자 포함)

모집일정

2014.06.11(수) ~ 2014.06.27(금)

지원방법

벤처전문취업포털 V-JOB(www.v-job.or.kr) 공동채용관에서 기업별 세부 모집요강 파악 후 지원

채용절차

참여기업 합동채용공고 (협회→기업) → 지원자 모집 (협회→기업) → 1차 이력서 취합 및 검토 (협회) → 기업별 지원자 추천 (협회→기업) → 2차 이력서 검토 및 면접 (기업→지원자) → 채용 (기업 (개별일정))

참고

본 사업은 총 5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원 회차에서 탈락되더라도 다음 회차에서 적합 기업이 생길시 협회의 추천이 이루어 집니다.

문의처

벤처기업협회 인재지원팀 02-6331-7051~7054 / job@v-job.or.kr

○ 3차 공동채용 주요 참여기업

▶선도벤처기업

디케이산업 주식회사 (디케이산업(주) DK Industrial Co.,Ltd.)
- 주생산품 : 냉장고, 세탁기반제품 • 매출액 : 93,800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250명 • 지역 : 광주
- 모집내용 : 프레스 오퍼레이터 0명

㈜아이티엑스시큐리티 (ITX)
- 주생산품 : DVR, CCTV, IPCAMERA • 매출액 : 82,584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업 • 직원 : 235명 • 지역 : 서울
- 모집내용 : HW엔지니어/SW엔지니어 0명

MDS테크놀로지㈜ (mds technology)
- 주생산품 : 임베디드SW • 매출액 : 82,000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서비스 • 직원 : 230명 • 지역 : 경기
- 모집내용 : 기술영업,기술지원,연구개발,교육연구 0명

주식회사 인포마크 (INFOMARK)
- 주생산품 : 모바일 라우터 • 매출액 : 61,229 백만원
- 업종/분야 : 무선통신기기개발, 제조 • 직원 : 72명 • 지역 : 경기
- 모집내용 : 국내 및 해외영업직 0명

㈜다원시스 (DAWONSYS)
- 주생산품 : 전원장치 • 매출액 : 51,000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및 판매 • 직원 : 170명 • 지역 : 경기
- 모집내용 : 연구개발/설계 0명

파코스㈜ (파코스(주))
- 주생산품 : 자동차 전장부품 • 매출액 : 20,900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115명 • 지역 : 경남
- 모집내용 : 솔레노이드 연구개발 0명

㈜아이두잇 (idoit)
- 주생산품 : 안테나 • 매출액 : 16,099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32명 • 지역 : 경기
- 모집내용 : SW,HW 연구개발/해외영업 외 0명

㈜그림 (GLIM)
- 주생산품 : TI,인터넷 • 매출액 : 16,000 백만원
- 업종/분야 : 인터넷 • 직원 : 10명 • 지역 : 경기
- 모집내용 : 응용프로그래머/CS엔지니어 0명

테크노빌리지㈜ (Techno Village)
- 주생산품 : 홈네트워크시스템, LED도어폰 • 매출액 : 15,000 백만원
- 업종/분야 : 건설, 도소매 • 직원 : 42명 • 지역 : 서울
- 모집내용 : 기술영업/기술지원 0명

㈜아시아 (AJA)
- 주생산품 : 메쉬 및 디자인휀스 • 매출액 : 15,000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90명 • 지역 : 전북
- 모집내용 : 용접/타공/분체/기획/사업계획서 작성 0명

(주)와이즈넛 (WISEnut searchwise, search wiser)
- 주생산품 : 검색솔루션 • 매출액 : 14,140 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개발공급 • 직원 : 135명 • 지역 : 경기
- 모집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0명

한아테크㈜ (한아테크(株) Living Lighting)
- 주생산품 : 조명기구 • 매출액 : 12,700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도소매 • 직원 : 35명 • 지역 : 경기
- 모집내용 : 경리회계 0명

(주)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DKI Technology)
- 주생산품 : 소프트웨어개발 • 매출액 : 12,000 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 • 직원 : 105명 • 지역 : 서울
- 모집내용 : 소프트웨어개발 0명

㈜코아게이트 (COREGATE)
- 주생산품 : 스마트카드 외 • 매출액 : 11,806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외 • 직원 : 30명 • 지역 : 서울
- 모집내용 : 스마트카드관련 운영체제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0명

▶우수성장기업

㈜베이비드림 (Baby dream 베이비드림)
- 주생산품 : 유아용품 • 매출액 : 18,000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55명 • 지역 : 서울
- 모집내용 : 해외영업/인사총무/경리//웹디자인/생산 외 0명

㈜한산에이엠에스텍크 (KEPID AMSTECH (주)한산에이엠에스텍크)
- 주생산품 : 전력량계,원격검침 시스템 • 매출액 : 12,869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도소매/서비스 • 직원 : 18명 • 지역 : 경기
- 모집내용 : 연구원 0명

㈜코디마 (KODIMA Korea Digital Manufacturing)
- 주생산품 : 금형제작 • 매출액 : 9,900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26명 • 지역 : 울산
- 모집내용 : 설계,연구개발,생산기술 0명

(주)화동뉴텍 (HwaDong)
- 주생산품 : 자동차부품 • 매출액 : 9,800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업 • 직원 : 48명 • 지역 : 강원
- 모집내용 : 개발,설계(정밀기계관리) 0명

㈜윌비솔루션 ((주)윌비솔루션 Will-Be SOLUTION)
- 주생산품 : CRM/SEM/DW개발 및 컨설팅 • 매출액 : 7,923 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직원 : 65명 • 지역 : 서울
- 모집내용 : JAVA개발자, DBA 0명

㈜미디어라이프 (media)
- 주생산품 : TV, STB, DID • 매출액 : 7,558 백만원
- 업종/분야 : 통신기기, 방송수신기 • 직원 : 13명 • 지역 : 경기
- 모집내용 : 하드웨어 설계 및 개발 0명

㈜열린기술 (열린기술)
- 주생산품 : 소프트웨어개발 • 매출액 : 7,000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외 • 직원 : 70명 • 지역 : 서울
- 모집내용 : 소프트웨어개발(sap,net/java) 0명

이노뎁㈜ (INNODEP)
- 주생산품 : 영상관제솔루션 • 매출액 : 5,800 백만원
- 업종/분야 : SW개발 • 직원 : 42명 • 지역 : 서울
- 모집내용 :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0명

(주)디케이엔지 (DK&G)
- 주생산품 : 엔지니어링컨설팅, 기계설비 • 매출액 : 5,177 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제조 • 직원 : 7명 • 지역 : 인천
- 모집내용 : 해외자동차 공장건설 및 엔지니어링 0명

키위플주식회사 (KIWIPLE INVITATION TO THE REAL WORLD)
- 주생산품 : 오브제, 매직아워 • 매출액 : 4,500 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직원 : 80명 • 지역 : 서울
- 모집내용 : IOW/안드로이드/서버 개발자 0명

로버무트㈜ (ROVERMOOT)
- 주생산품 : 시스템통합, 인터넷보안 컨설팅, SW개발공급 • 매출액 : 1,893 백만원
- 업종/분야 : IT/정보통신 서비스 • 직원 : 7명 • 지역 : 서울
- 모집내용 : 서버네트워크 보안엔지니어, 웹마스터 0명

㈜어린이창조학교 (어린이창조학교)
- 주생산품 : 애니메이션, 교재/교구 • 매출액 : 1,300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8명 • 지역 : 서울
- 모집내용 : 마케팅/고객관리 0명

㈜세라토크 (CERATORQ All about piezo)
- 주생산품 : 초음파노즐 • 매출액 : 900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4명 • 지역 : 서울
- 모집내용 : 생산관리 사무원 0명

이노넷㈜ (INNONET)
- 주생산품 : 무선통신장비 외 • 매출액 : 598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7명 • 지역 : 경기
- 모집내용 : 기구설계, S/W, H/W 0명

▶연봉우수기업

㈜나노필름 (NANOFILM)
- 주생산품 : 필름, 코팅액 • 매출액 : 7,422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30명 • 지역 : 경북
- 모집내용 : 연구직/생산직 0명

㈜픽소니어 (PIXONEER GEOMATICS)
- 주생산품 : 과학기술 소프트웨어 • 매출액 : 6,937 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제조 • 직원 : 46명 • 지역 : 대전
- 모집내용 : SW개발 0명

아이시스㈜ (iSYS 아이시스(주))
- 주생산품 : 박막코팅장치 • 매출액 : 6,500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도매,부동산,서비스 • 직원 : 21명 • 지역 : 경기
- 모집내용 : PVD&CVD 박막코팅장비 연구개발/전장 설계 0명

㈜디리아 (DREA)
- 주생산품 : 소프트웨어 • 매출액 : 3,500 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 • 직원 : 49명 • 지역 : 서울
- 모집내용 : 응용/웹프로그래머 0명

(주)에이팜 (APHARM)
- 주생산품 : 화장품 • 매출액 : 2,600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도,소매 • 직원 : 19명 • 지역 : 대구
- 모집내용 : 온라인 홍보, 마케팅/오프라인 홍보(이벤트, 행사) 0명

구우정보기술(주) (KUWOO Information Technology)
- 주생산품 : 소프트웨어 • 매출액 : 2,595 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업 • 직원 : 36명 • 지역 : 서울
- 모집내용 : JAVA, .net , C# 프로그래머 0명

㈜코시스바이오 (COSIS Bio)
- 주생산품 : 기능성 발효식품 • 매출액 : 2,475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8명 • 지역 : 충북
- 모집내용 : 미생물 배양 및 배양물 생산 담당 0명

㈜이노그리드 (INNOGRID)
- 주생산품 : 클라우드솔루션 • 매출액 : 2,173 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개발 • 직원 : 30명 • 지역 : 서울
- 모집내용 : 클라우드솔루션 영업 0명

이셀전자㈜ (eCELL)
- 주생산품 : 모바일디바이스 • 매출액 : 1,500 백만원
- 업종/분야 : 도소매,제조업 • 직원 : 12명 • 지역 : 경기
- 모집내용 : H/W엔지니어 0명

㈜시드테크 (SEED Technology)
- 주생산품 : 전기,전자,무역 • 매출액 : 1,500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도소매 • 직원 : 7명 • 지역 : 경기
- 모집내용 : 체육,의료 전자산업 분야 영업 0명

(주)윈텍 (WINTEC)
- 주생산품 : PLC • 매출액 : 1,300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전기공사 • 직원 : 8명 • 지역 : 경기
- 모집내용 : 시스템프로그래머, 설계엔지니어 0명

㈜준성이엔알 (JSENR JUNSUNG ENR Co., Ltd)
- 주생산품 : 로봇외 • 매출액 : 1,171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10명 • 지역 : 광주
- 모집내용 : 연구개발 0명

빅썬시스템즈㈜ (Bigsun SYSTEMS)
- 주생산품 : AP제품 및 이동형 와이파이/무선보안 • 매출액 : 1,100 백만원
- 업종/분야 : 무선네트워크 및 보안 • 직원 : 7명 • 지역 : 서울
- 모집내용 : 총무/엔지니어 0명

더원검사엔지니어링㈜ (TWIE)
- 주생산품 : 비파괴검사 • 매출액 : 470 백만원
- 업종/분야 : 비파괴검사 • 직원 : 27명 • 지역 : 경남
- 모집내용 : 비파괴검사 0명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KOVA (사) 벤처기업협회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코스트코에서 배운 교훈



뉴스룸에서
이 국 명
<경제·산업부장>

"죄송하지만 아직 기업을 공개할 때가 아닌 듯합니다."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중견·중소기업을 취재하는 '알짜기업탐방' 코너 섭외 전화를 이렇게 거절하는 기업이 간혹 있다. 제품·서비스 현황, 매출 등 일반적인 기업 소개는 가능하지만 복지제도 등을 취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제도가 많이 알려지면 좋지 않으냐"고 다그치면 그제야 "과도한 복지라고 생각하는 주주들이 항의하기 때문"이라고 속내를 드러낸다.

최근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미국 비즈니스 업계에서 화제다. 페이스북·어도비 등 쟁쟁한 첨단 IT기업들을 제치고 구직정보업체 글래스도어가 선정한 '미국 내 직원 보수·복지 톱 25개사' 중에서 당당히 2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구글(1위)과도 평점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다.

글래스도어의 조사에서 코스트코 직원들이 올린 회사 평가는 칭찬 일색이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마트 잡역부로 시작해 코스트코를 창업한 짐 시네갈 전 CEO의 경영철학인 '주주보다 직원 우선'에 따라 직원에게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코스트코 매장 계산대 직원의 시급은 평균 20달러(약 2만300원)로 월마트 등 경쟁사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또 월마트가 직원의 절반 정도에게만 건강보험료를 보조해주는 반면 코스트코는 대부분의 직원을 지원해준다. 시간제의 경우에도 이직률이 10% 미만일 정도로 직원들의 애사심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코스트코가 이처럼 직원들의 복지에 돈을 '펑펑(?)' 썼는데도 경쟁사인 월마트보다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코스트코의 주가는 3배 이상 뛰었지만 월마트는 50% 성장에 그쳤다. 이 덕분에 코스트코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유통기업'으로 불리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비용' '고임금=비효율'이란 인식이 아직 강하다. '저비용 고효율'을 절대과제처럼 받들며 직원들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코스트코처럼 '고비용 고효율'로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직원 행복도가 현명한 투자지표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주주가 늘어나길 바란다.

인사청문회 개선 없이 국정안정 어렵다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4·16 세월호 참사'로 비롯된 개각이 단행됐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경제 교육 등 부총리를 포함해 7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중폭개각이 이뤄졌다. 청와대 비서진도 실장은 유임됐지만 정무 경제 민정 교육 등 주요수석비서관이 교체됐다. 박근혜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최대의 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선 국무총리 지명에서 '안대희 카드'가 전관예우 논란 속에 실패한데 이어 문창극 후보도 매우 불안하다. 8·15해방을 비롯한 남북분단, 위안부에 대한 시각이 오해받을 만큼 동떨어진 발언이 드러나면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소장파조차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 지명에 유례없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청와대의 인사팀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전 검증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인선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이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한 번도 순조로운 적이 없었다. 대부분 도덕성에 흠집 내기로 일관했다. 상대적으로 정책수행능력 검증은 뒷전이었다. 따라서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들은 고사하기 일쑤였다. 마치 경제학에서 말하는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고 하는 그레샴의 법칙처럼…….

이제는 인사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유능한 인재를 수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회인준이 필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사전검증이 이뤄진다. 백악관 인사국에서 FBI(연방수사국)신원조회는 물론 IRS(국세청)세무조사·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233가지에 달하는 조항을 검증해 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에 앞서 의회 여야 지도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라 원색적인 폭로전 속에 인신공격 흠집 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에 회의적이다. 한비자(韓非子)의 "不吹毛而求小疵(불취모이구소자) 터럭을 불어 작은 흠집을 찾지 않고, 不洗垢而察難知(불세구이찰난지) 알기 어려운 것을 때를 씻어내면서 까지 살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철학이 인사청문회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포토프리즘 추억으로의 시간여행



14일 서울회현지하상가 중앙광장 일대에서 '회현지하상가 아날로그 페스티벌'이 열린 가운데 한 노신사가 LP판을 구경하고 있다.
이 날 한 LP샵을 방문한 이 시민은 "최근들어 옛 음악을 추억의 소리로 즐길 수 있는 LP를 더 찾게된다"고 말했다. / 손진영기자 son@

미디어 속 막말 성희롱, 이대론 안된다



기자수첩
탁 진 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지난주 라디오 청취자들이 눈살을 찌푸린 일이 일어났다. 소녀시대 써니가 진행하는 MBC FM4U '써니의 FM데이트'에서 가수 쌈디가 성희롱에 가까운 '막말'을 해서다.

당시 청취자들과 연애담을 나누는 '사랑의 기술' 코너에 특별 손님으로 출연한 쌈디는 반말로 써니에게 "몸 쓰는 것도 일종의 테크닉일 수도 있고" "너 꼬시러 왔어" 등의 발언을 했다. 당황한 써니가 "청소년 청취자도 있다"며 자제를 당부할 정도였다. 청취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서야 쌈디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과했다.

이번 사건은 올바른 성 의식이 결여된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됐지만 한편으론 성희롱 발언 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우리 사회의 풍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대중 매체에서 성상품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고, 요즘엔 특히 출연진이 방송에서 수위 높은 발언을 주고 받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최근 '19금' 영화와 프로그램이 주목받으면서 생긴 일이다. 어떤 때는 출연자의 발언이 농담인지 성희롱인지 구분이 힘들 때도 있다.

연예 매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연예인의 화보 기사를 실으며 성희롱에 가까운 자극적인 제목을 뽑는다. 한글을 몰라 보도가 크게 문제될 소지가 적은 해외 스타의 경우엔 더 심하다. 미란다 커의 화보를 놓고 몇 몇 연예 매체들은 '벌어진 가슴 골 사이로' '주요 부위가 보일 듯' 등의 제목을 달았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남성이 많다. 개개인은 물론 미디어를 다루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

하나님의 뜻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어느 날 떨기나무가 있는 곳에서 불길이 이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기이하게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은가? 순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의 백성들이 비통하여 아우성을 치는 구나. 네가 가서 이들을 구하라."

신의 뜻은 히브리인들이 제국의 지배 아래 고통을 겪으며 사는 것에 있지 않았다. 이들에게 자유의 미래가 열리도록 일으켜 세우는 것에 있었다.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 받은 하늘의 사제였다. 그가 이집트 제국으로 돌아가 나일강에 지팡이를 담그자 강이 피가 되어 흐른다. 나일 강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젖줄로, 제왕의 권력과 부의 근원으로 떠받들려 졌던 대하(大河)다.

그러나 모세는 그 권력과 부의 밑바닥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폭로한 것이었다. 누구의 피였던가? 인간을 노예로 부리고 그들을 계속 희생시키는 현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이 장면에 압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후 대탈출을 하게 되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저 압제의 굴레에서 해방시킨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일깨우신다. 자유와 해방의 절대자에 대한 기억을 이들의 집단의식으로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이 기억과 뜻을 마음과 몸에 새기는 인간과 집단은 결국 떨기나무의 불꽃이 된다. 하나님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신앙의 결과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떠 창조되었다는 믿음 대로다. 떨기나무는 미디야 광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흔한 키가 낮은 덤불숲 나무였다. 그건 힘이 없는 히브리 백성들의 처지 그대로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에 하늘의 뜻이 타오르면, 광채와 불길이 일어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성서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대로의 형상을 취하시기 때문이다. 떨기나무 불꽃은 예수시대에 성령의 불로 모습을 바꾼다. 인간은 신의 뜻을 받아 살면, 그런 빛과 뜨거움을 지닐 수 있는 존재다.

모세 시대 이후 출현한 예수가 회당에서 읽은 성서 이사야서의 핵심은 "갇힌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다.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은 사자와 양들이 함께 뛰놀며 누구도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는 평화의 나라였다. 자유, 해방,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은 압제, 속박, 전쟁의 현실과 맞서신다. 결코 그 반대가 아니다.

지긋 지긋한 허리, 목 디스크 진화된 고주파 치료로 10분이면 끝!

기존 치료보다 진화…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 가능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 위한 시스템 통해 환자 회복 도와

유명 여배우의 아버지 S씨는 평소 약간의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아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양말을 신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기면서 오른쪽 다리 당김과 통증이 발생해 근처 척추 전문병원을 찾았다.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S씨에게 병원은 수술을 권유했다. 수술이 무섭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 고민하던 S씨는 결국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고자 S양과 같은 방송인 런닝맨에 출연 중인 방송인 G씨의 소개로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을 내원했다.

김상욱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 원장은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로 S씨의 상태를 진단하고 국내 유명 연예인들과 세계인들이 주로 치료받았던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다. 치료를 받은 S씨의 통증은 호전됐고 치료 당일 퇴원했다.

또 최근 불후의 명곡과 히든싱어 우승으로 화제가 된 국내 최고 보컬 가수 휘성은 군 복무 중 악화된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제대 후 강남초이스병원을 방문했다. 휘성 역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로 치료받은 후 통증이 줄어 곧바로 퇴원할 수 있었으며 현재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런닝맨에서 활약하는 가수 김종국과 개리 역시 휘성과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다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말끔히 해소돼 현재 방송활동과 런닝맨 촬영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3년 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강남초이스병원이 시행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유명 연예인들과 세계인들이 치료받아 이름이 알려졌다. 국소 마취하에서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전문의가 직접 환부를 관찰하며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넣는 방법이다. 기존의 고주파 열 치료 또는 수핵 감압술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그리고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환자 증상·질환에 따라 맞춤형 치료 실시

이와 함께 강남초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질환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통해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진단 후 초·중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에는 아픈 부위에 간단히 신경 주사치료를 시행한다. 또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환자들은 고주파 디스크로 치료받는다.

더욱이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강남초이스병원은 환자의 나이·증상에 따라 환자 1명을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선진·체계화했다.

또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 잡는 도수치료와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 치료, 그리고 약화된 관절·근육·인대를 강화하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치료를 통해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본원 외에 여의도역, 홍대입구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 치료센터를 개설해 합리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1800-3800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매끈한 몸매로 화끈하게 달린다”

임의택의 차차차

■ BMW 220d



BMW가 놀라운 점은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차에만 신경을 써도 되겠지만, 경쟁사들이 만들지 않는 신차종을 선보이는 실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등장한 2시리즈 쿠페 역시 기존에 없던 차종이다. 1시리즈 쿠페의 후속이지만 큰 변화가 있었기에 새로운 이름을 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 1시리즈 쿠페보다는 전장이 72mm, 전폭이 26mm 길어졌고, 휠베이스는 30mm, 뒷좌석 레그룸은 21mm가 길어졌다. 휠베이스는 2690mm로 3시리즈 세단에 비해서 120mm 짧다.

차체는 커진 것뿐 아니라 1시리즈보다 비율이 좋아졌다. 1시리즈는 차체가 짤막한 데다 헤드램프가 어색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러나 2시리즈는 날렵한 헤드램프를 달고, 여기에 어울리는 범퍼와 차체 라인을 완성했다.

실내는 3시리즈와 유사하다. 비슷한 등급에서 비교되는 메르세데스 벤츠 CLA 200 CDI와 비교해보면 2시리즈가 훨씬 고급스럽게 꾸며졌다. 2도어 쿠페지만 뒷좌석은 타기에 불편함이 없고, 뒷좌석을 접으면 390ℓ인 트렁크공간을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다.

1시리즈 쿠페 후속…320d와 같은 엔진 얹어
가속력·연비 뛰어나…승차감은 약간 튀는 편

2시리즈는 2.0ℓ 184마력 디젤 엔진을 얹은 220d만 수입된다. 벤츠 CLA 200 CDI가 136마력 1.8ℓ 디젤 엔진을 얹고 있는 것에 비하면 파워의 우월성이 뚜렷하다. 8단 자동변속기와 궁합을 맞춘 220d는 320d에 비해 40kg 가벼운 만큼 더 날렵한 움직임을 보인다. 기어는 저속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엔진음은 듣기 좋게 셋업됐다. 데이터 상으로 정지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320d보다 0.4초 빠르다. 그러나 220d의 차체가 더 낮고 짧아서 실제 가속감은 데이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진다.

320d보다 가속감이 좋고 운전재미도 있지만, 승차감은 살짝 튀는 편이다. 상대적으로 휠베이스가 짧고, 저편평비 타이어를 장착했기 때문이다. 220d가 앞 225/40 R18, 뒤 245/35R18 타이어를 장착한 반면, 320d는 앞뒤 모두 225/50R17 사이즈를 달고 있다.

연비는 도심 14.8km/ℓ, 고속도로 20.1km/ℓ, 복합 16.7km/ℓ로, 320d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여전히 뛰어난 편이다. 배기량이 더 낮은 벤츠 CLA 220 CDI와 비교하면 고속도로와 복합연비는 220d가 더 뛰어나다. 이번 시승에서는 12.0km/ℓ를 기록했다.



▲한 줄 평가: 멋지고 잘 달린다. 옵션을 뺀 모델을 내놔도 좋을 듯. ▲평점: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

BMW 220d의 가격은 5190만원으로, 사양이 비슷한 320d 스포츠(5400만원)보다 210만원 싸다. 등급 차이를 감안하면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쿠페를 찾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3시리즈 세단과 수요 간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CLA 200 CDI는 4630만원으로 220d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220d의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만족도의 차이는 클 것으로 보인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국산차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기아	K3	–	–	1,350	1,470	1,480
	뉴프라이드	–	–	1,100	1,150	1,250
	카니발R	–	1,890	2,180	2,390	2,560
현대	아반떼MD	–	1,100	1,230	1,360	1,480
	그랜저HG	–	–	2,180	2,400	2,760
	싼타페CM	1,580	1,740	1,840	2,180	2,580
르노삼성	뉴SM3	950	990	1,060	1,250	1,430
BMW	뉴5시리즈	2,400	3,500	3,830	4,410	4,610
	뉴X5	4,090	4,790	5,320	6,900	6,710
아우디	뉴A4	2,340	2,530	2,820	3,180	3,710
벤츠	뉴C클래스	2,700	2,870	2,920	3,290	4,030

정보제공 :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진화한 ‘포르쉐 바이러스’를 만나다

포르쉐 전 라인업 경험 기회… 3년 만에 월드 로드쇼

포르쉐 오너를 들뜨게 하는 행사가 올해도 찾아왔다. ‘포르쉐 월드 로드쇼’가 바로 그 무대다.

기자는 슬라럼 코스부터 배정됐다. 슬라럼은 일정 간격으로 놓인 파일런을 지그재그로 통과해 출발점으로 되돌아는 구성이다.

이어서 911 카레라4와 4S 카브리올레로 브레이킹 세션이 진행됐다. 과거에는 ‘Y자 회피 코스’라 해서 신호기가 펄럭이면 급차선 변경 후 차를 제동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번에는 시속 90km까지 가속 후 곧바로 제동하는 테스트로 바뀌었다 두 차 중 카브리올레의 제동거리가 더 짧게 느껴졌다.

점심식사 후에는 본격적인 트랙 주행을 경험했다. 유사한 라인업끼리 4대씩 모아 연이어 타보는 방식인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차는 3년 전 영암 서킷과 마찬가지로 911 GT3였다.

포르쉐가 각종 레이스 대회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가 집약된 이 차는 자연흡기 엔진으로 최고출력 475마력을 낸다. 레이싱카 같은 버킷 시트와 단단한 서스펜션 셋업은 다른 포르쉐 모델과 확연히 구분된다. 다른 911 모델의 레드존이 8000rpm인 반면, GT3는 9000rpm부터 레드존이 시작되고 무려 1만rpm까지 계기반에 표시돼 있다. 크랭크샤프트와 밸브 기어, 포르쉐 더블 클러치(PDK)까지 GT3용으로 새롭게 설계된 덕에 자연흡기 엔진임에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쉼 없이 뿜어낸다.

포르쉐 월드로드쇼에 처음 선보이는 모델 중 눈길을 끈 것은 콤팩트 SUV ‘마칸’이었다.

포르쉐에서 처음 사용된 V6 3.6ℓ 바이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400마력과 최대토크 56.1kg·m를 뿜어낸다. 주행특성은 ‘작은 카이엔’보다 ‘큰 911’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오프로드 주행에도 비중을 둔 카이엔과 달리, 마칸은 일반도로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무게 중심이 한결 낮게 설계돼 있다.

자극적인 포르쉐의 모델들을 만나다가 파나메라에 앉으니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진다. 파나메라 S에는 기존 V8 4.8ℓ 엔진 대신 다운사이징 된 V6 3.0ℓ 바이 터보 엔진을 얹었다. 연비효율성이 떨어지는 4.8 엔진을 대체하는 새 엔진은 배기량을 줄였으면서도 최고출력은 20마력 늘어났다.

시승을 마치면 인스트럭터들의 드리프트 주행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포르쉐 바이러스’는 한층 진화된 모습이었다. ‘포르쉐 바이러스 중독자’를 양산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2일까지다.

/임의택기자

HNT 하나투어리스트

스마트한 여행자들의 선택!

특가날짜를 잡아라!

6월~7월 15일 출발상품 한정!

WOW! 놀라운 가격에 믿을수없는 특전까지~
나는 하나투어리스트로 여행간다!

동남아시아

푸껫 ★일급리조트 ●푸껫(4) **6일**
299,000 ▶6월 23일 ●파통야시장 투어, 호텔 디너 및 특식제공

코타키나발루 ★준특급 호텔 **5일**
399,000 ▶7월 2일
●코타키나발루(3) ●세계자연유산 키나발루 국립공원투어 포함($70상당)

세부 ★팜비치 리조트 **5일**
349,000 ▶6월 24,30일
●세부(3) ●마젤라십자가, 성어거스틴 교회, 산페드로요새 등 시내관광 포함

보라카이 ★일급리조트 **4일**
299,000 ▶6월 22,23일
●보라카이(3) ●세일링 보트, 디몰투어, 특식 제공

캄보디아(앙코르왓) ●씨엠립(3) **5일**
549,000 ▶6월 26,29일
●대한항공 탑승 ●초특급 5성급 호텔 이용
●전통안마 1시간 포함, 압살라 민속쇼 공연관람

중국

홍콩 ★2층 오픈탑버스 **4일**
379,000 ▶7월 6,7,8,15일
●홍콩(3) ●진에어 탑승 ●헐리우드로드,소호거리,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체험

북경 ★발마사지+서커스+4대특식 ●북경(3) **4일**
199,000 ▶6월 25일/7월 1,2일
●자금성,이화원,만리장성 관광, 북경 오리구이, 샤브샤브, 교자연, 한식 등 식사 제공

장사/장가계/원가계 ●장사(1)–장가계(3)–장사 **6일**
399,000 ▶6월 28,30일
●장사 준 5성급, 장가계 4성급 호텔 이용, 천문산 케이블카 포함 및 전일정 다양한 특식제공

삼청산/황산/무원 **6일**
399,000 ▶6월 27일 [출발확정] ●아시아나항공 탑승
●남창(1)–삼청산(1)–무원–황산(2)–무원–남창 ●황산 케이블카 왕복(운곡왕복 구간)

백두산(서파)/고구려유적지/대련 **5일**
499,000 ▶6월 25,29일 ●아시아나항공 탑승
●대련–단동(1)–통화(1)–백두산–통화(1)–단동(1)–대련 ●하나투어 마일리지 3만 마일 추가적립

일본

나가사키 ●우레시노(1)–사가–운젠(1)–나가사키(1) **4일**
499,000 ▶7월 6,13일 ●진에어 탑승

오사카(교토/나라/고베) **3일/4일**
[3일] **469,000** ▶6월 23,25,30일
[4일] **649,000** ▶7월 1,6,7,8,13,14,15일
●간사이–나라–오사카(1)–교토–아라시야마–오사카(1)–고베–간사이 ※ 상품별 일정상이

북해도 ★도야온천 숙박 ●티웨이항공 탑승 **4일**
789,000 ▶7월 6,13일 ●치토세–기타히로시마(1)–도야(1)–노보리벳츠–삿포로(1)

도쿄(시즈오카/하코네) **3일/4일**
[3일] **499,000** ▶7월 3,10일
[4일] **699,000** ▶7월 2,9일
●시즈오카–도쿄(1)–시즈오카(1) ※ 상품별 일정상이 ●아시아나항공 탑승

남큐슈 ★전일정 온천욕 ●아시아나항공 탑승 **3일**
399,000 ▶6월 25일 ●미야자키(1)–기리시마–가고시마(1)–미야자키

www.hanatourist.com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77-1212
강남점 **1600-6963**
신분당선 선정릉역 2번출구 뚜르드카페 내 위치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여행상품 가격포함 내역 :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경비 포함(단, 개별여행 상품은 미적용)유류세는 상기 상품 가격 외 별도지불 하셔야 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 '선택관광경비'나 '안내원 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상품의 행사는 (주)하나투어에서 주관합니다. ■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26004-1993-6(종로구청)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주)하나투어
■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 / 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고객 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 ■숙소 : 2급호텔 이상

월드컵 프로모션 "이참에 싸게 사자"

16강 오르면 추가 할인, SNS 이용한 이벤트 눈길

4년만에 돌아온 월드컵 축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패션 업계에서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잇따라 선보여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슈즈 멀티 스토어 슈마커는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며 '고~올(Go~all)! 대한민국' 이벤트를 벌인다. 전국 슈마커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 한국팀 경기 종료일까지 한국팀이 승리할 땐 10% 추가 할인과 16강 진출 시에는 20% 추가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DFD패션그룹의 브랜드 소다는 13일부터 30% 품목할인과 전품목 10% 추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10% 추가 할인은 중복 할인이 가능하며 16강 진출 시 추가 10%를 더 할인한다.

이탈리아 슈즈 브랜드 마나스는 대한민국 대표의 선전을 기원하며 전 품목 20% 할인을 진행한다. 16강에 진출 했을 땐 추가 16%까지 할인 총 36%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영국 슈즈 브랜드 핏플랍은 월드컵을 기념해 만든 '차차'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이벤트를 18일까지 벌인다. 이벤트 페이지를 자신의 블로그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카페 등에 스크랩 한 뒤 제품명이 들어간 월드컵 응원 구호를 만들어 URL과 함께 핏플랍 공식 블로그에 올리면 된다.

캐주얼 브랜드 PAT(피에이티)도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며 페이스북 응원 이벤트를 연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월드컵 승리 기원 응원 이벤트는 이 브랜드의 페이스 북에 접속해 페이지와 해당 이벤트 '좋아요'를 누르고 국가대표팀을 위한 응원 댓글을 남기면 된다.

아웃도어 브랜드 컬럼비아도 태극전사의 승리를 기원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힘내라 대한민국'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첫 경기 승리를 염원하며 댓글 응원전을 펼칠 수 있는 이벤트를 15일까지 진행한다. 응원의 목소리를 댓글로 남기는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쿨링 제품인 옴니프리즈 제로 티셔츠와 암슬리브 등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0'칼로리 탄산수 이마트는 여름을 맞아 칼로리 걱정 없는 '0칼로리'의 탄산수를 이마트 자체브랜드(PL)로 출시해 시중 탄산수 대비 최대 40% 가량 저렴한 3960(330㎖X4입)에 판매한다. 이 제품은 이마트가 세계 3대 광천수라 불리는 '초정리 탄산수'를 이용해 개발했으며, 대형마트 최초로 유리병에 담아 출시해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 제공

응원하다 흥분하면 목 망가져

시청 전후 물 많이 마시고 후두 마사지를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첫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소리를 내거나 지나치게 고함을 지르면 성대가 충격을 받게 된다.

목소리는 목 양쪽에 있는 성대가 진동해 만들어진다. 큰 소리를 낼수록 성대의 진동과 부딪힘이 커지게 되는데 고함이나 응원을 위해 소리를 지를 경우 성대가 고속으로 진동해 성대 점막에 궤양이나 결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월드컵 응원으로 인해 목소리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경기 시작 전부터 물을 충분히 마셔 성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성대 준비운동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입안에 공기를 잔뜩 머금고 입천장을 올리고 혀를 내린 상태에서 공기를 불 듯 가볍게 '우'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때는 목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입술과 볼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응원이 끝난 후에는 목젖을 기준으로 양쪽을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곳을 손가락으로 돌려가면서 후두 마사지를 해줘야 한다.

김형태예송이비인후과음성센터 원장은 "과도한 응원으로 목소리가 쉬면 대화를 삼가고 물을 자주 마시면서 성대를 쉬게 해야 한다"며 "만약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정확한 질환을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알찬 결혼 돕는 스탠포드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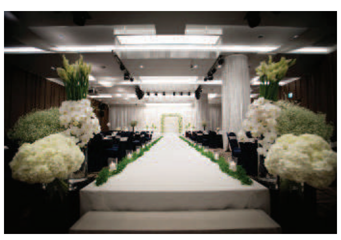
비수기 연회·웨딩 비용 할인 혜택 공세

결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수기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알차게 예식을 올릴 수 있는 결혼 비수기 시즌을 노리는 현명한 커플들이 늘고 있다. 이에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위치한 스탠포드 호텔이 비수기 동안 연회·웨딩 비용 할인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쿨 서머 웨딩 프로모션'

우선 7월과 8월에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쿨 서머 웨딩 프로모션'이 있다.

보증 인원 25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메뉴 가격은 인삼 비프 버거 스테이크 코스가 3만8000원, 등심 스테이크 코스가 4만원, 너비아니 코스가 4만2000원이다. 또 프로모션 메뉴 외 기존 메뉴를 선택하면 10% 할인과 함께 음·주류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생화 꽃 장식을



198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오픈 3주년 기념 웨딩 프로모션'

'오픈 3주년 기념 하반기 웨딩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식사 10% 할인, 테이블 당 음료 4캔 및 잔치국수 무료, 음·주류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허니문 객실 1박이 무료로 제공되며 공항 무료 샌딩 서비스와 커플 아로마 테라피 서비스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예식 비용 결제 시 호텔과 제휴를 맺은 카드를 사용하면 금액에 따라 최고 100만 원권의 백화점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문의: 02)6016-0020 /황재용기자

'두유' 추격… 아몬드 음료 출시 붐

견과류 열풍으로 신장세

최근 불고 있는 견과류의 인기가 음료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견과류 중 하나인 아몬드를 활용한 '아몬드 음료'가 잇따라 선보이며 건강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아몬드 밀크'로 불리는 아몬드 음료는 식물성 단백질로 구성됐으며 불포화지방 함량이 높다. 또 유당이 없어 유당 분해능력이 떨어지는 체질의 사람들도 부드럽게 소화하며 섭취할 수 있다.

아몬드 음료는 이미 세계 최대 아몬드 수출국인 미국에서 우유의 대체 식품으로 두유의 점유율을 맹



추격하며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연세우유는 캘리포니아산 생아몬드를 갈아 만든 아몬드 음료 '연세 리얼아몬드'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없고, 우리 몸에 유용한 불포화지방산 오메가9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칼슘을 우유 한 팩 수준(200㎖ 기준 200㎎)으로 강화하고, 비타민과 L-카르니틴까지 균형 있게 함유했다. 우유·두유보다 낮은 칼로리(190㎖ 기준 80㎉)로 장점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삼육식품이 젊은 여성 소비자를 겨냥해 아몬드 음료 '아라몬드'를 출시했다. 칼슘·비타민E·단백질·섬유질 등의 필수영양소가 밀도 있게 함유돼 10~30 여성들의 건강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해태음료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아몬실크'로 아몬드 음료 시장에 진출했다. 이 제품은 아몬드 음료가 웰빙을 추구하는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의 식사 대용으로 좋은 음료라는 점을 내세웠다. /정영일기자

한정판으로 응원해볼까?

월드컵 특수 겨냥… 태극기·호랑이 소재 출시 잇따라



질레트, 헤지스골프, 락앤락, 수페르가(사진왼쪽부터)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일 6월, 국내 유통업계가 월드컵 특수를 겨냥해 특별 한정판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한정판인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은 특정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소량 생산이 가진 희소가치로 많은 소비자의 지갑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생활밀착형 업계들은 태극기와 호랑이를 소재로 한 대한민국 한정판을 선보이며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 및 기업 이미지 개선에 힘쓰며 애국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먼저 면도기 브랜드 질레트는 2010년에 이어 2번째로 한정판 제품을 선보였다. 면도기 핸들에 태극마크와 'KOREA'를 적용하고 전면 레드 컬러와 축구공으로 디자인했다. 옥션에서 축구 강국인 스페인·영국·독일 한정판을 국내에 각 2000개만 한정 판매하고 있다.

헤지스골프에서는 응원티셔츠로도,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아이스 플래그(ICE FLAG)'라인을 선보였다. 2014년 썸머 응원패션 모티브로 제작한 티셔츠로 브라질과 헤지스 기원의 영국, 한국의 국기를 헤지스 강아지 로고 및 컬러 블록으로 표현했다.

락앤락이 선보인 비스프리 콜렉션 물병 월드컵 에디션은 모자로 형상화된 뚜껑에 나라별 국기가, 몸체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색상과 유니폼이 그려져 있다. 한국 캐릭터 물병은 붉은 악마를 연상시키는 빨간 유니폼과 볼에 찍힌 태극마크, 한쪽 눈을 감아 윙크하고 있는 표정을 연출했다.

신발·모자 등도 예외는 아니다. 스니커즈 브랜드 수페르가에서는 이번 축구 페스티벌을 겨냥해 국기 라인을 리뉴얼한 제품에 새롭게 태극기를 추가해 10개국 국기 스니커즈를 선보였다. 지난 2010년 한정판에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 중 유일하게 일본라인만을 생산했지만 이번 올해는 대한민국도 출시국에 포함됐다.

모자 멀티샵 브랜드 '햇츠온'에서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모티브로 한 제품을 선보였다. 햇츠온 고유의 캐릭터인 엘스팅코와 축구를 매치했고 태극마크의 상징인 호랑이를 이용해 한국 정서와 월드컵의 이슈를 적절히 표현했다.

홈플러스에서 내놓은 티셔츠엔 붉은악마 측의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식 슬로건 '즐겨라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소매와 목에 푸른색 라인을 가미해 대표팀 유니폼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호랑이와 함께 불꽃처럼 날아가는 축구공의 이미지가 역동적으로 표현됐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화장품 '쿠션' 전성시대

색조 메이크업까지 적용



'쿠션' 제품은 간편하게 피부톤을 보정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러 차례 덧바를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여성들의 필수 뷰티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최초의 쿠션 팩트는 아이오페에서 출시된 '에어쿠션'이다. 흐르지 않고 잘 발리는 주차 도장 스탬프에서 착안해 2008년 3월에 첫 선을 보였다. 쿠션에 스며있는 제품을 내장된 퍼프로 찍어 도장을 찍듯 피부에 간편하게 펴바를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9월 단일품목으로 누적판매 1000만개를 돌파했으며 지난해 연간 매출 1200억 원의 기록을 세웠다. 올해 역시 5월 누계로 전년 대비 58% 성장하며 매출 845억을 돌파했다.

쿠션 팩트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자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차별화된 성분과 기능으로 업그레이드된 쿠션 팩트들을 선보이고 있다.

한율 '광채 쿠션'은 '진주광(光) 볼륨 제법'이라는 기술을 통해 피부 볼륨을 채우고 얼굴 빛과 톤을 보완해 입체감 있는 피부를 완성해준다. 한스킨은 비비크림을 담은 쿠션 팩트 '에어바운스 쿠션 비비'를 선보였다. 촉촉한 저점도 비비크림이 함유된 제품으로 수분 공급·주름개선·미백·선블록·파운데이션의 5가지 기능을 한데 담았다.

오휘의 '워터프루프 커버 모이스트 CC쿠션'는 농축된 스파 미네랄 성분뿐만 아니라 자사 베스트 셀러인 '셀파워 넘버원 에센스' 성분이 함유돼 피부 광채 효과를 극대화한다.

쿠션은 별다른 스킬 없이도 쉽게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색조 메이크업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특히 립 제품의 경우 브러시보다 스머징 효과가 뛰어나 물들인 듯 연출이 가능하며 블러셔 제품은 베이스 메이크업 부분과 컬러 경계가 지지 않아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쿠션의 원조 아이오페가 선보인 '에어쿠션 블러셔'(사진)는 덧바를수록 윤기와 생기있는 피부 표현이 가능하며 핑크 컬러가 자연스럽게 밀착되도록 돕는다. 아리따움의 '워너비 쿠션 틴트'는 매트한 질감의 틴트를 자연스럽게 스머징해주는 조밀도의 스폰지를 적용했다.

/정혜인기자

맥주전문점 94번가, 사업설명회

'굽네치킨' 운영 노하우 바탕 맛으로 성공 확신



94street 속초부영점 외관사진. /지엔푸드 제공

굽네치킨에서 만든 맥주전문점 94street(94번가)는 지난 14일 오후 1시 선릉직영점에서 사업설명회를 했다.

94street(www.94st.co.kr)는 생맥주를 저온 저장고에 보관해 맥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굽네치킨을 전개하며 쌓은 차별화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비 가맹점주들의 성공을 자신한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19세기 유럽의 모던 빈티지 스타일로 내부 인테리어를 꾸며 세련되고 깔끔한 매장을 연출해 마치 유럽에서 맥주를 즐기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문의: 1644-9792

/김학철기자

J-POP 부르러 일본 가자!

제12회 일본가요대회 참가자 모집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일본관광신문이 주최하는 제12회 일본가요대회에서 7월 1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행사는 일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만 40세 미만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응모는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jmic@so.mofa.go.jp)로 접수하면 된다. 예선은 7월 18일, 19일, 20일 3일간 펼쳐지며 본선 진출자 15팀을 결정한다. 예선에는 많은 응모자가 참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래의 1절만 심사한다. 반주는 노래방 기계를 사용한다. 본선 진출자는 7월 24일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를 통해 발표된다.



본선은 8월 1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에서 일반공개로 실시된다. 노래 전 소절을 부르게 되며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가사는 볼 수 없다. 행사 당일 본선 관람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또 수많은 게임·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불러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토 가나코와 지난해 '베사메무쵸'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은 가와카미 다이스케의 축하공연도 열린다.

최우수상·우수상·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일본 연수와 상장·부상이 수여된다. 장려상·가창상·인기상에게도 상장과 부상을 준다. 일본연수와 입상자 부상, 관람객 경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통지될 예정이다. 문의: 02)765-3011(내선 110), jmic@so.mofa.go.jp

/정혜인기자 hijung0404@

이대목동병원, '위식도 역류 질환 건강강좌'

정혜경·심기남 교수 강연… 무료 참석 가능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가 오는 24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공개 강좌-가슴이 아파 잠 못 드는 당신을 위하여'를 개최한다.

강좌에서는 정혜경 소화기내과 교수가 '위식도 역류 질환 진단-가슴 쓰림부터 목 통증과 만성 기침까지'라는 주제로, 심기남 소화기내과 교수가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식이요법부터 내시경 치료까지'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한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진료실에서 풀지 못했던 궁금증도 풀어준다.

질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며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전달된다. 문의: 02)2650-5887 /황재용기자



"이 땅의 40대 위해 뛰겠다"

리얼 예능 '런닝맨'에 완벽 적응한 **지 석 진**

방송인 지석진이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에서 부활했다. 지난달 25일 전국 대학생 딱지치기 대회에서 유재석을 제치고 우승하며 '딱지왕'에 이름을 올렸다. 리얼 예능인 이 프로그램에서 늘 약체라는 인상을 주다가 이제는 "스냅백이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완벽하게 적응한 지석진을 만났다.

◆ 불운의 아이콘에서 탈피한 걸 축하한다

벗어날 때가 됐다. '런닝맨' 큰 형이다. 40대 시청자가 나에게 감정 이입을 한다. 지면 안타까워하고 이기면 좋아한다. 어깨가 무겁다. 3개월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타고난 근육이 있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 '런닝맨'의 해외 인기가 상당하다

엄청나서 깜짝 놀란다. '런닝맨'이 초반에 국내 반응이 별로 였다. 그런데 그때도 태국에선 공항에 수천 명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초반 대만 현지 팬이 알아보고 '지숙진'이라고 계속 불렀다. 당시 외양이 초췌해서 끝까지 아니라고 우겼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선 아예 거리를 다닐 수 없다. 팬미팅을 하면 그 나라 신문 전면에 실린다. 파파라치도 많아 포즈를 취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 이제는 리얼 예능에 잘 어울린다

맞다. 리얼 예능과 잘 안 어울렸었다. 그런데 지금은 '런닝맨'에서 착용하는 스냅백이 내 몸에 꼭 맞는다. 대학생과 딱지를 쳐도, 젊은 여자 게스트와 짝을 이뤄도 안 어색하다. 어울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예전에 아나운서 같은 정돈된 진행을 많이 해서 '런닝맨' 출연은 도전이었다. 4년 동안 스스로 실망도 많이 했다. 방송을 위해 그만둘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내가 맞춰야겠다'고 합의 봤고 지금은 대중이 친근하게 느껴줘서 고맙다.



지석진이 출연한 '런닝맨' 방송 캡처.

꼴찌에서 딱지왕 등극… 스냅백이 몸에 딱 맞아
2집 앨범 계획·사업 시작… 감동 주기 위해 최선

◆ 섭외 요청이 많을텐데 왜 출연하지 않나

많이 들어온다. 스튜디오 방송보다는 활동적이고 젊은 방송을 하고 싶다. 당시엔 '런닝맨' 해외 팬미팅을 많이 다녀서 시간 맞추기가 애매했다. 이젠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뜸해졌다.

◆ 거절 이유엔 사업도 포함되나

사업은 내 자존심이다. 꾸준히 실패하지만 또 꾸준히 할 것 같다. '국민 치킨'이라는 가게를 열었다. 건물이 클럽 같아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저렴하게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다. 번화가에 직영점을 낼 생각이다. (웃음)

◆ 1집 앨범이 발매된 지 20년이 됐다

2집을 계획 중이다. 가요 프로그램 활동은 하지 않을 거다. '런닝맨' 배경음악으로 삽입하거나 뮤직비디오만 만들 예정이다.

◆ 트위터에 음악 관련 내용이 많이 게재된다

음악을 사랑한다. 특히 힙합 듣는 걸 좋아한다. 랩을 따라 하는 건 어려운데 개리에게 조언을 많이 구한다.

◆ 개리에게 다음 앨범 곡을 부탁했나

부담 주는 거 같아서 얘기하지 않았다. 개리는 틈틈이 랩을 연습한다. 가사 쓸 때도 고민하는 걸 옆에서 봤다. 더 말하자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가공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최근 발표한 '사람냄새'도 1위를 해서 정말 기분이 좋다. 개리가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 신곡 피처링에 김종국·개리·유재석, 뮤직비디오 남녀 주인공에 송지효와 개리가 출연하면 아시아권에서 대박날 거 같다. 장난이다. (웃음)

◆ 트위터 계정 이름이 '아이 러브 감동'이다

감동을 좋아한다. 보기와 달리 눈물이 없다. 울고 싶으면 영화를 일부러 볼 정도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 원트 감동'이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싶기도 하다. '런닝맨-전국 대학생 딱지치기 편'부터 감동을 주기 위한 두 세 발걸음을 뗀 것 같다. 딱지왕이 됐을 땐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으나 이내 이성이 지배했다. 이젠 40대 '런닝맨'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디자인/최송이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줄 드라마가 온다!
tvN 월화드라마
고교처세왕
코믹 오피스 활극
18세 본부장님의
아슬아슬 이중생활!
오늘 밤 11시 | tvN 첫방송
서인국 | 이하나 | 이수혁 | 이열음 연출 유제원 | 극본 양희승 조성희

'닥터 이방인' 촬영장에서 무슨 일이?

'남남 케미' 이종석·박해진 뒷 이야기 공개

SBS 월화드라마 '닥터이방인'은 첫 방송부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일 방송된 12회는 시청률 11.5%(닐슨코리아·전국기준)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은 경쟁 구도를 유지하던 박훈(이종석)과 한재준(박해진)이 힘을 합쳐 환자를 수술하며 마무리됐다. 두 사람의 '남남 케미'가 13회부터 어떤 재미를 줄 지 기대가 크다. 드라마 관계자에게 전해들은 이종석과 박해진의 촬영 뒷 이야기를 공개한다.

◆ 박해진 알록달록 수술 모자

박해진이 연기하는 한재준 과장은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다. 눈길을 사로잡는 건 한재준의 수술 모자. 그 동안 한국 의학드라마 의사들이 파란색 모자를 쓴 것과는 달리 알록달록한 모자를 착용했다.

박해진 측 관계자는 "실제 의사들은 수술 모자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긴다. 모자의 종류도 다양하다"며 "미국 의학드라마엔 다양한 종류의 모자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알록달록한 모자는 한재준이 미국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데에서 비롯한다. 제작진과 박해진이 논의 한 끝에 완성된 수술 패션"이라고 덧붙였다.

◆ 장량 배꼽 인사

'닥터이방인' 8회에 처음 등장한 중국 최고 모델 겸 배우 장량은 촬영장에서 배꼽인사로 한국 배우들과 인사한다. 친한 사이인 박해진이 가르쳐줬다.

그는 작품에서 국제 변호사 미스터장을 연기한다. 한재준이 명우대학병원에 복수를 하기 위해 신분 세탁을 한 사실을 아는 유일한 인물로 그를 돕는다.

촬영 당시 명우대병원 이사장 오준규 역의 전국환, 박훈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문형욱(최정우)은 장량과 친해지기 위해 "니하오"라고 인사했고 이에 장량은 배꼽인사로 답했다는 후문이다.



이종석·박해진 /아우라미디어 제공

◆ 이종석 양갱

극중 이종석은 양갱을 먹거나 의사 가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된다.

이종석 측 관계자는 "협찬이 아니다"며 "박훈 캐릭터가 외골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훈이 첫사랑 송재희(진세연)만을 사랑하는 면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관계자는 이어 "이종석이 직접 진혁 PD와 상의해서 설정한 것"이라며 "양갱은 고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수술 후 원기 회복에도 좋고 주머니에 넣어 두기도 간편하다"고 양갱을 소품으로 선택한 이유를 언급했다.

◆ 명우대병원의 비밀 : 수술 48시간·LED 조명

배우들은 약 48시간 동안 수술 장면을 찍는다. 카메라가 배우의 어깨와 손 등 신체 이곳 저곳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촬영에 지친 배우들은 손만 나오는 장면의 경우 눈을 감고 선잠에 든다.

명우대병원 장면은 대부분 경기도 세트장에서 촬영된다. 세트장은 유리 벽으로 이뤄졌다. 극중 박훈이 가상 수술을 시연하는 공간이 대표적이다. 세트장은 진혁 PD만의 조명으로 실재감을 느낄 수 있다. 조명은 LED며 유리에 빛과 스태프의 모습이 비치지 않게 특정 장치를 배치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개과천선' 조기종영 석연찮다

MBC "두 차례 결방, 배우 스케줄 때문"
쪽대본·시청률이 진짜 이유라는 의견도

MBC 수목극 '개과천선'이 당초 18부작으로 예정돼 있던 것과 달리 오는 26일 16부를 끝으로 종영한다.

MBC는 지난 13일 "6·4 지방선거 개표 방송과 월드컵 평가전 중계 등에 따른 결방으로 인한 것"이라며 "주연배우 김명민의 영화 스케줄로 인해 추가 촬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청자들 사이에선 이는 조기종영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8부작은 드라마 제작 전부터 계획된 것인데 두 차례의 결방으로 인해 26일 이후로 출연진들의 스케줄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핑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생방송에 가까운 드라마 제작 시스템에 있다. 최희라 작가의 '골든타임'은 웰메이드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지만 쪽대본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개과천선'이 두 차례나 결방을 했지만 추가 촬영이 불가피한 이유는 이 같은 제작 환경 때문이다. 지난 4월29일 제작발표회 당시 김상중은 "(시간적) 여유 없이 드라마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5회부터 등장한 채정안은 당시 "아직 촬영 시작도 안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한국 드라마 제작 시스템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앞서 '개과천선'은 김명민·김상중 등 탄탄한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과 최희라 작가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평균 시청률은 8%대를 유지했고 수목드라마 중에선 2,3위 자리를 다투기 바빴다. 드라마 팬들은 "조기종영의 진짜 이유는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과 시청률 지상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





광저우는 '유티엔 홀릭'

박유천, 중국 단독 팬미팅 뜨거운 반응

JYJ 박유천이 중국 광저우를 '유티엔(유천) 홀릭'으로 만들었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어제(14일) 박유천(사진)이 광저우 체육관에서 '2014 박유천 팬미팅 – 하우스 워밍 파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전날 현지에서 연 기자회견이 일간지에 크게 보도된 데 이어 팬미팅장에서도 팬들이 박유천의 말 한 마디마다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행사장은 박유천이 등장하기 전부터 팬들의 함성으로 달궈졌다. 박유천은 광둥 지역 사투리로 "레이하오, 꿔더하오마?(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라고 인사해 큰 환호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팬들은 4일 생일을 맞이한 박유천을 위해 한국어로 생일 축하 노래를 합창했다. 24만 명이 넘는 박유천의 바이두 팬클럽은 깜짝 생일 축하 영상을 공개했다.

박유천은 중화권 가수 광량(光良)의 곡을 국내 가수 김형중이 리메이크한 '동화'를 불러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팬들의 소원 신청 코너에서 '귀요미' 포즈를 선보이기도 했고, 팬들의 고민 상담 코너에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하기도 했다. 또 사인이 담긴 김밥 도시락을 만들어 추첨을 통해 뽑힌 팬들에게 선물했다.

특별 게스트로는 박유천과 같은 소속사에 있는 가수 거미가 참석해 박유천이 주연한 드라마 '쓰리데이즈'의 OST인 '날 부르네요'와 새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사랑했으니..됐어' 등을 불렀다.

박유천은 "여러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줘서 큰 감동이고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최대한 많은 사랑을 주고받자"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유천은 중국 후난위성TV 인기 예능프로그램 '쾌락대본영'의 '남신(男神)특집'에 국내 배우로서는 유일하게 초대됐다. 이 방송은 23일 녹화돼 다음달 12일 전파를 탄다. /탁진현기자 tak0427@

의욕에 대해서



임경선의 **모·놀·로·그**

살다 보면 의욕이 확 떨어질 때가 있다. 하고 싶은 것도, 지금 하는 일에 대한 투지도, 가지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다. 내가 놓인 상황이 참 어정쩡하게 느껴지지만 노력해도 그리 나아질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다.

'힘내라'고 주변사람들은 격려하지만 힘을 내는 일이 고통스럽다. 힘내고 싶은 게 아니라 힘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요하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주변을 실망시키거나 사랑을 못 받을까 두려워 힘낼 것을 스스로에게 강요한다.

그럴 때는 차라리 힘내는 걸 관두는 편이 용기가 더 필요하다. 의욕이 자연스럽게 샘솟지 못할 때, 힘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은 포기나 나태함보다 나만의 페이스와 중심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다.

억지로 힘내고 노력하는 것이 역으로 의욕을 상실시킨다면, 의욕을 다시금 자연스럽게 불러모으는 것은 사사로운 욕망들인 것 같다. 가령 여름샌들을 한 켤레 산다거나, 맛있는 케이크를 마음껏 먹는다거나, 무작정 여행을 떠나보는 등, 가뜩이나 의욕도 없는 상태에서 낭비에다가 무모해 보이는 일이라도 한 번 그 욕구를 보듬어주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이런 행동들을 스트레스 해소나 현실불만에 대한 보상 정도로 치부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써 생기와 의욕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런 사사로움이 자동차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몸의 지혜다.

아프다가 첫 식욕을 느낄 때 몸을 보해야 하는 것처럼 의욕이 바닥인 와중에도 그 어떤 사사로운 욕망을 느껴지면 주저 없이 그 욕망을 채워보는 것이 슬럼프에서 빠져 나오는 첫걸음이 되어준다.

요즘 시대엔 이글이글하게 욕망을 품기보다 점점 욕망을 비워가는 무소유, 무욕의 마음을 높이 평가하지만, 여러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고 필요 없는 것을 버릴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란 타인이 가진 것을 질투하며 가지려는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내 마음 속의 솔직한 감정으로서의 욕망이다.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각방 쓴지 5년 갈라서야하나 자존심 강해 50세후 헤어질듯

hynin 여자 75년 5월 8일 양력 7시

Q 이제는 정말 제 운명을 알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남편과 성격이 맞지를 않아 각방을 쓴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건축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지방 출장이 잦아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9살 된 아들이 있고 주말 부부로 지내면 더욱 애정이 두터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A 부부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귀하는 '대들보'와 같아 주관이 확고하고 간여지동(干與地同:천간과 지지가 같음)에서 갑목(甲木)현침살(懸針殺:날카로운 기물)이 겹쳐 있으므로 서로의 자존심만 내세웁니다. 생일지에 고란살(孤鸞殺:독수공방하는 흉함)이 있는데 남편이 절궁(絶宮)으로 남편과는 50세 지나도록 이별을 논하게 됩니다. 게다가 식상(食傷:내가 생해 주는 오행으로 자식을 말하며 남편을 극하는 기운)이 강하여 자식 낳고 부터는 남편과 멀어 지게 되는 것이니 작정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 불평을 달고 살아가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다시 상담 신청을 하십시오.

불안해 잠못들고 피로감 심해 사주알면 약함이 강하게 변화

배두산산 여자 81년 2월 12일 양력 18시

Q 사주를 보면서 약을 짓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보니 저의 건강에 대해서도 제 사주 안에 건강에 대한 숨은 무엇이 있는지가 하여 상담을 의뢰 합니다. 정신적으로 제 자신이 보기에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불안 하여 잠을 잘 못자고 하루 종일 피로하여 매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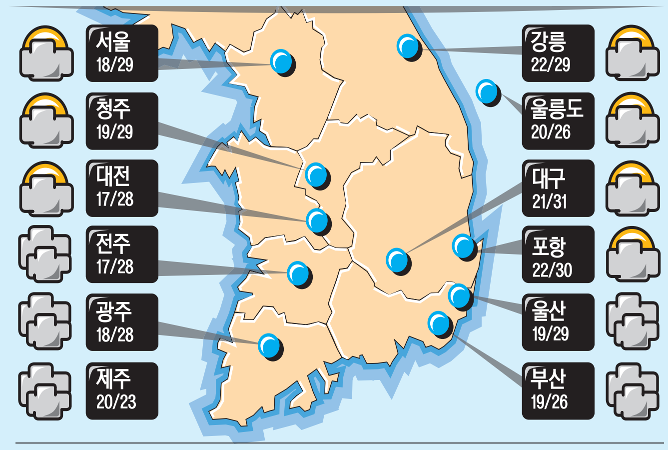
A '많은 씨를 담은 석류'와 같이 아름답고 열매가 익기도 전에 태어났으니 신경이 여리고 날카로우며 번민과 상념에 잠깁니다. 내강(內强)의 전형적인 타입으로 소란스러운 것을 싫어하고 고요한 환경을 좋아하시지요. 교신성(交神星)으로 무슨 일이던지 타인과 같이 하지 못한다는 성좌(星座)로 생각은 깊으나 자아심이 강하여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고 자기생각과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알고 만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방황하지마시고 사주학 공부를 해보십시오. 정신보건센터에 가서 심리 치료를 받으시던지 재차 얘기하지만 사주를 알면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으며 약함이 강하게 스스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씨

6/16 月 일출시각 05:10 일몰시각 19:5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비만은 허혈성 심장 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을 유발합니다. 평소 운동량이 적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걷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8	3			6	
	9	8			6	3		
			6		8	4		3
	6	3		2		7	1	
7		2	4		3			
		7	1			5	3	
	5			4	2		7	

8				6				
	7			9		2		1
3			5			9	4	
	6						8	2
		5				4		
2	3						9	
	5	7			8			9
9		8		3			7	
				1				4

스도쿠 정답

5	2	4	8	3	1	9	6	7
3	7	6	2	9	4	1	8	5
1	9	8	7	5	6	3	4	2
9	1	5	6	7	8	4	2	3
4	6	3	9	2	5	7	1	8
7	8	2	4	1	3	6	5	9
2	4	7	1	8	9	5	3	6
8	3	1	5	6	7	2	9	4
6	5	9	3	4	2	8	7	1

8	9	2	1	6	4	5	3	7
5	7	4	8	9	3	2	6	1
3	1	6	5	7	2	9	4	8
4	6	9	3	5	1	7	8	2
7	8	5	9	2	6	4	1	3
2	3	1	4	8	7	6	9	5
1	5	7	6	4	8	3	2	9
9	4	8	2	3	5	1	7	6
6	2	3	7	1	9	8	5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신점[神占] 운세

6월 16일 (음 5월 19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자손에 희소식이 있다. **60년생** 사과는 빨리할수록 이득~. **72년생** 꼬였던 일은 하나씩 정상화 되어간다. **84년생** 운기의 흐름이 좋으니 계획대로 밀고나가라.



49년생 집안일은 힘을 합쳐라. **61년생** 슬퍼도 너무 슬픔에 빠지면 안 된다. **73년생** 요행수 바라지 말고 땀을 흘려라. **85년생** 대세를 이탈하면 고립 자초한다.



50년생 답답한 마음은 뚫린다. **62년생** 애매한 일은 중립 지키는 게 최선~. **74년생** 직장인은 조직의 미래를 선도한다. **86년생** 장애물이 있어도 뒷걸음은 치지 말라.



51년생 내가 편안하고자 추한 행동은 삼가라. **63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듣는다. **75년생** 세상일에 약간 둔감해야 편안~. **87년생** 예민한 연인 때문에 우울하다.



52년생 애착을 보인 일은 결실 맺는다. **64년생** 현장근로자는 안전사고 조심~. **76년생** 힘들어도 늘 유쾌한 배우자가 있어 좋다. **88년생** 소신대로 당당하게 나가라.



53년생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 말라. **65년생** 집안의 큰 짐을 지게 돼 답답~. **77년생** 직장인은 조직서 존재감 보여준다. **89년생** 가까이 다가오는 이성은 잘 살펴라.



42년생 설마하는 방심은 화 부른다. **54년생** 늦기 전에 부모에게 할 도리 하라. **66년생** 과한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78년생**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할 일은 하라.



43년생 갈 길이 멀다고 서두르지 말라. **55년생**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하다. **67년생**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사랑하라. **79년생** 공들인 일은 성과를 거둔다.



44년생 밖으로 나가면 입이 즐겁다. **56년생** 꼭 필요한 숨은 인재 발굴하고 아호~. **68년생** 장사하는 사람은 고전 예상된다. **80년생** 귀인이 도우니 꿈을 키워라.



45년생 호락호락 않는 배우자 때문에 휴~. **57년생** 금전에 초연해야 말썽이 없다. **69년생** 담판을 지을 땐 확실하게 지어라. **81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다.



46년생 힘들어도 버텨야 한다. **58년생** 똑똑한 자녀가 웃음 보따리 선물~. **70년생** 흠집은 스스로 고치는 게 좋다. **82년생** 인정받고 싶으면 한결같은 마음 보여주라.



47년생 사람을 차별 않도록 신경 써라. **59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친다. **71년생** 부탁도 자리를 봐가며 할 것. **83년생** 좋은 일로 작은 지출이 발생한다.

metro worldcup

일본 '월드컵 깜짝쇼'는 없었다

코트디부아르에 1-2 역전패… 역대 최고성적 목표 흔들

코트디부아르가 일본을 잡고 아프리카 축구 최강의 위력을 드러냈다.

코트디부아르는 15일 브라질 헤시피의 페르남부쿠 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일본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스페인과 우루과이 등 시드 배정국이자 이번 월드컵 우승 후보국이 각각 네덜란드와 칠레에 대패하는 등 초반 이변이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지는 듯 했지만 슈퍼스타 디디에 드로그바의 활약이 이를 저지했다.

사타구니 부상으로 드로그바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코트디부아르는 윌프리드 보니를 최전방 공격수로 내세웠지만 이렇다할 공격을 보이지 못한 채 오히려 일본에 선취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전반 16분 나가토모 유토가 왼쪽에서 가가와 신지에게 스로인한 공을 다시 돌려받아 중앙으로 밀어줬고, 다이스케 혼다는 페널티 지역 입구에서 이를 왼발 슈팅으로 연결시켜 상대 골망에 꽂았다.



코트디부아르의 윌프리드 보니가 동점골을 터트리자 일본 수비진이 허탈하게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코트디부아르는 볼점유율(59%)만 앞선 채 일본에 끌려가며 맥 없이 전반을 끝냈다. 그러나 후반 17분 드로그바가 교체 투입되며 전세는 급격히 뒤집혔다.

드로그바가 그라운드를 밟은 지 2분 만에 세르주 오리에의 크로스를 보니가 헤딩골로 연결시켜 동점을 만들었다.

기세가 오른 코트디부아르는 2분 뒤인 후반 21분 첫 골과 비슷하게 오리에의 크로스에 이은 제르비뉴의 헤딩슛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일본 수비진은 드로그바를 수비하느라 진땀을 흘렸고, 코트디부아르 공격진은 급격히 무너진 일본 진영을 공략하며 후반전을 완전히 장악했다. 일본은 여러 차례 추가 실점 위기를 가까스로 막는데 만족해야 했다.

코트디부아르는 그리스를 3-0으로 누른 콜롬비아와 승점은 같고 골 득실차에서 뒤져 조 2위에 자리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을 넘어 원정 대회 최고 성적을 노리는 일본은 이날 패배로 조별리그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남아공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카메룬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고 1-0 승리를 이끌었던 혼다는 일본 선수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두 대회에서 득점에 성공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피를로 마지막 월드컵서도 진가

이탈리아 첫승 주역

안드레아 피를로는 잉글랜드-이탈리아 전의 숨은 MVP였다.

이탈리아의 35살 노장 미드필더 피를로는 15일 브라질 마나우스의 아마조니아 경기장에서 열린 잉글랜드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딥 라잉 미드필더로서 제 몫을 확실히 해내며 2-1 승리의 주역이 됐다.

미드필드 후방에 자리잡고 경기의 흐름을 살피다가 길게 패스를 찔러넣는 역할을 주로 수행해온 피를로는 이날 경기에서도 넓은 시야로 경기의 흐름을 이끌면서 예리한 패스와 슈팅으로 이탈리아 공격을 책임졌다.

긴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 특유의 지친 표정으로 중원을 어슬렁거리는 한 마리 사자와 같은 모습을 하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맹수로 변하는 피를로의 장기는 여전했다.

피를로는 전반 35분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의 선제골이 나올 당시 수비의 시선을 자기 쪽으로 유도하는 숨은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후반에도 직접 공격 내지 날카로운 패스로 잉글랜드 수비진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피를로가 노련한 플레이로 잉글랜드 수비진을 교란시키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날 경기의 최우수 선수인 '맨 오브 매치'에는 결승골을 넣은 마리오 발로텔리에게 돌아갔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피를로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부터 대표팀에서 활약해온 피를로는 2006 독일 월드컵 우승, 2012 유럽축구선수권 준우승 등 아주리 군단의 전성기를 이끌어 왔고 국가대표로서 마지막 무대인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녹슬지 않은 기량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순호기자

마라도나, 카시야스에 비난 퍼부어

월드컵 이모저모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54)가 스페인 간판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33·레알 마드리드)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마라도나는 14일(한국시간) 베네수엘라 방송인 텔레수르와의 인터뷰에서 "카시야스는 내가 본 것 중 최악의 경기를 했다"며 "내 친구 (조제) 모리뉴 (첼시) 감독이 카시야스가 좋은 골키퍼가 아니라고 한 말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날 카시야스는 네덜란드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B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5골을 허용하며 5-1로 패했다.



13일(현지시간) 열린 B조 조별리그 네덜란드와의 1차전에서 3번째 골을 내주는 스페인. /AP연합뉴스

◆게릴라 두목, 월드컵 보려다 검거

콜롬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반군인 민족해방군(ELN) 게릴라 두목 중 한 명인 알프레도 곤살레스가 볼리비아의 은신처에서 월드컵 경기를 보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곤살레스는 보통 한 장소에서 1~2일 넘게 머물지 않지만 이번 은신처에선 여러 날을 머무르며 위성 방송 수신기를 설치했고 술과 음식 등을 구해 월드컵 시청을 준비했다.

이런 행동에 불만을 품은 경호원 한 명이 콜롬비아와 그리스의 조별리그 경기가 열리기 전 당국에 비밀을 누설했다.

◆칠레 대표팀 "숙소 탓에 패할 뻔"

칠레 국가 대표팀이 "숙소 때문에 패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칠레는 지난 14일 B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호주를 3-1로 꺾었다. 그러나 칠레 대표팀 관계자는 "호텔의 몇몇 방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 선수들은 인터넷으로 상대 정보를 얻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데 열악한 환경 탓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첫 경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터넷 매체 뉴스24는 "칠레가 19일 스페인과의 조별 2차전을 치르기 위해 숙소를 옮기면서 호텔 측에 '안락한 환경, 새로운 침대, 평면 TV 그리고 빠른 인터넷 속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지민·전효진기자 langkim@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14일(한국시간) 베이스캠프인 브라질 이구아수의 페드로 바소 경기장에서 러시아전 '필승해법'을 찾기 위한 비공개 훈련에 나선 선수들에게 훈련지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필승 전술' 마무리 훈련

러시아전 앞두고 기존 전략 완성도 높이는데 중점
박주영 공격 선봉, 손흥민·이청용 좌우 날개 포석

홍명보호가 러시아 격파를 위해 '필승 전술' 마무리 훈련에 들어갔다.

한국 대표팀은 15일(한국시간) 브라질 포스 두 이구아수의 페드로 바소 경기장에서 두 시간 동안 비공개 전지훈련을 치렀다. 전날 취재진에 15분만 공개한 대표팀은 이날은 선수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예 비공개로 훈련을 했다.

대표팀은 이번 훈련에서 새로운 전술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에 연습해 온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팀은 안톤 두 샤트니에 전력분석 코치의 조언에 따라 러시아의 빠른 역습을 막기 위한 수비 훈련과 좌우 측면을 통한 공격 루트 완성, 프리킥이나 코너킥 등 세트상황에서 공격 침투를 막는 방법 등에 공을 들였다. 앞서 마이애미 전지훈련때부터 연습한 것들이다.

역대 대회를 통틀어 가장 많은 해외파(17명) 선수로 구성된 홍명보호는 4-2-3-1 전술로 나선다. 박주영(아스널)이 공격의 선봉을 맡고, 빠르고 발재간이 뛰어난 손흥민(레버쿠젠)과 이청용(볼턴)이 좌우 날개를 책임질 전망이다.

구자철(마인츠)이 섀도 스트라이커로 나서고, 기성용(스완지시티)과 한국영(가시와 레이솔)이 중원을 맡는다.

포백은 왼쪽부터 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김영권(광저우 헝다)-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김창수(가시와 레이솔) 조합이 유력하다. 골키퍼는 경험이 풍부한 정성룡(수원)이 맡을 전망이다.

러시아 대표팀은 4-3-3 전술로 한국과 상대한다. 원톱 스트라이커는 23살의 신예 알렉산드르 코코린(디나모 모스크바)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좌우 날개는 유리 지르코프(디나모 모스크바)와 알렉산드르 사메도프(로코모티브 모스크바)가 맡을 전망이다.

공격보다는 수비가 강한 팀이다. 최근 A 매치 14경기 평균 실점이 0.64골이다. 그러나 약점이 없지 않다. 14경기에서 내준 9골 가운데 4골을 후반 45분 이후에 허용해 막판에 약하다. 30대 초·중반 나이인 중앙 수비수의 체력 저하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대표팀이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한다면 러시아 수비진의 체력을 더 일찍 떨어뜨릴 수도 있다.

한국 대표팀은 18일 오전 7시 쿠이아바 판타나우 경기장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 나선다.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 진출 성패를 가늠할 이날 경기를 위해 15일 오후 쿠이아바로 이동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호날두, 준비는 끝났다

월드컵 프리뷰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9·레알 마드리드·사진)가 2014 브라질 월드컵의 포르투갈 첫 경기에 정상 출전할 가능성을 높였다.

호날두는 G조 본선 1차전인 독일과의 경기를 이틀 앞둔 15일(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캄피나스에서 진행된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했다.

최근 왼쪽 무릎 건염과 다리 근육 통증으로 고생한 호날두는 지난주 훈련을 20분만 소화한 뒤 아이스팩을 해 부상이 악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훈련 참석으로 전망을 밝게 했다.

팀 동료인 윌리앙 카르발류와 주앙 무티뉴는 이날 훈련 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가 알기론 호날두는 이미 100% 컨디션"이라며 호날두의 포르투갈 첫 경기 출전을 예상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국가대표 최다 득점자인데다 1월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까지 거머줘 이번 월드컵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독일 역시 루카스 포돌스키, 메주트 외질(이상 아스널), 안드레 쉬를레(첼시), 마리오 괴체,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이상 바이에른 뮌헨) 등이 화려한 전열을 자랑하는데다 최근 4차례 메이저대회 맞대결에서 포르투갈을 3차례나 꺾어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포르투갈과 독일의 경기가 열리는 17일 이들과 같은 조인 가나와 미국도 1차전을 치른다. 미국은 2006년 독일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과 2010년 남아공월드컵 16강에서 모두 가나에 1-2로 졌기에 이번에 설욕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마이클 브래들리(토론토), 저메인 존스(베식타스)의 어깨에 승리가 달렸다.

같은 날 F조 나이지리아와 이란도 첫 경기를 시작한다. F조는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팀 전력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 혼전이 예상된다. /탁진현기자



KIA 사직 7연패 탈출

LG는 SK에 15-2 대승

KIA 타이거즈가 사직 롯데전 7연패 사슬을 끊었다.

KIA는 1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원정경기에서 8-4 역전승을 거뒀다.

선발 투수로 나선 메이저리그 출신 김병현(35)이 4이닝 6피안타 3실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디딤돌을 놓았다.

KIA는 4회초 1사 2루에서 차일목의 중전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했다. 5회 1사 2루에서는 이범호가 우전 안타로 추가점을 뽑았고, 신인 김다원이 1사 2·3루에서 2타점 우전 적시타를 쳐냈다.

마산에서는 NC 다이노스가 한화 이글스를 11-2로 이겼다.

대졸 2년차 오른손 투수 이성민은 올 시즌 첫 1군 무대 등판에서 승리를 거뒀다. 김경문 감독은 이날 경기로 한국 프로야구 역대 8번째 600승 감독이 됐다.

대구에서는 삼성 라이온즈가 두산 베어스를 3-1로 이겼다. 선발 윤성환이 7이닝 6피안타 1실점 호투했다.

잠실에서는 LG 트윈스가 SK 와이번스에 15-2 대승을 거뒀다. 박용택이 올해 프로야구 1호이자 자신의 4번째 1회말 선두타자 홈런으로 포문을 열었다. /탁진현기자

프로야구 전적 15일

■ 잠실

S K	000	200	000	2
L G	180	006	00X	15

△승 = 우규민(4승 4패) △패 = 고효준(3패) △홈런 = 박용택 4호(1회1점) 백창수 1호(6회4점·이상 LG)

■ 대구

두산	010	000	000	1
삼성	002	100	00X	3

△승= 윤성환(6승 3패) △세 = 임창용(3승 1패 14세이브) △패 = 유희관(6승 3패) △홈런 = 칸투 16호(2회1점·두산) 채태인 6호(3회2점·삼성)

■ 사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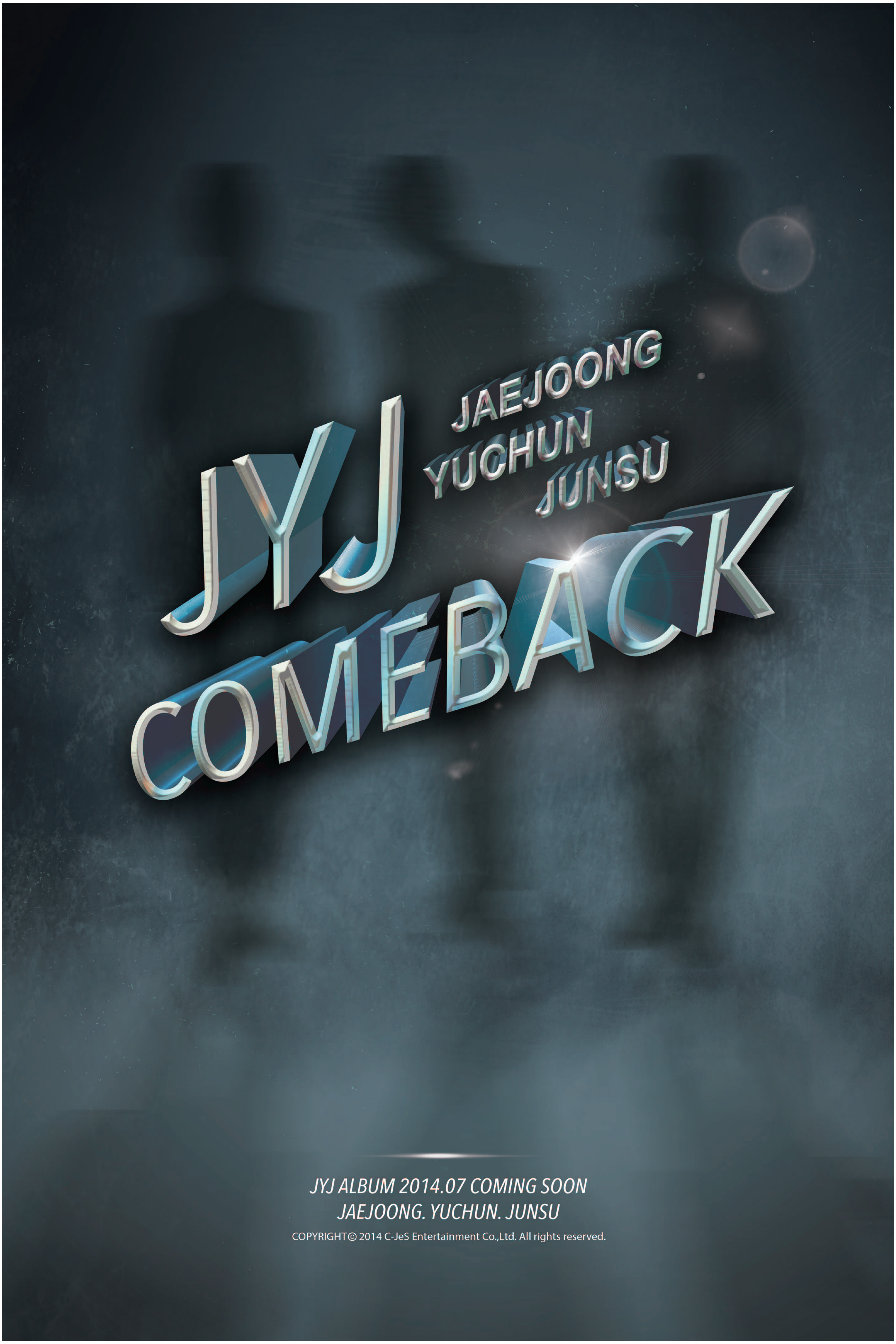
KIA	003	130	010	8
롯데	030	000	010	4

△승 = 최영필(2승) △패 = 장원준(6승 4패) △홈런 = 안치홍 7호(3회3점·KIA) 최준석 10호(8회1점·롯데)

■ 마산

한화	000	100	001	2
N C	700	310	00X	11

△승 = 이성민(1승) △패 = 송창식(1승 3패 1세이브) △홈런 = 모창민 9호(1회3점) 손시헌 3호(1회1점·이상 NC)


JAEJOONG
YUCHUN
JUNSU
JYJ
COMEBACK
JYJ ALBUM 2014.07 COMING SOON
JAEJOONG. YUCHUN. JUNSU
COPYRIGHT© 2014 C-JeS Entertainment Co.,Ltd. All rights reserved.